

석사학위논문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과 대응

- 북한의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

2024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선 우 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과 대응

- 북한의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

The Prospect of nK's Military Threats and our Responses
due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선우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염규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과 대응

- 북한의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

The Prospect of nK's Military Threats and our Responses
due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선 우 민

선우민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 상 화 (인)

심 사 위 원 조 규 호 (인)

심 사 위 원 염 규 현 (인)

국 문 초 록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과 대응 - 북한의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제 안 보 전 공

선 우 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단기간 내 패전할 것이라 여겨졌던 우크라이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방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지적인 승리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에 준 교훈과 영향력은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중요성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전황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개전초 인지전의 승리를 통해 적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아군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선(善)으로 인식하게 하고, 러시아의 국제적 비난을 받도록 유도했으며, 러시아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초래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자협력체계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패권국의 지위를 탈환하려는 중국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안보 다자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협력체에 소속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물론, 인지전과 다자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겠으나, 국가로서 경제적, 외교적 이점이 부족한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탈피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발전과 더불어 전략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ive Damage, WMD)의 발전을 성공시킴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적인 존재로 다시금 주목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위협을 자처하며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제 7차 핵실험을 통해 전략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며, 탄도미사일의 실험 영역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와 연계하여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혁신 4.0」을 발표하여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전자기전, 사이버전 역량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며, 군사정찰위성과 연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주요어】 우크라이나, 인지전, 다자협력체계, 북한의 위협, 우리의 대응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국제정세 변화 동향	4
제 1 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4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4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적 영향	5
제 2 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2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배경	22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배경	23
3)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의 차이점	24
제 3 절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26
1) 강화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6
2) 중국몽(中國夢)의 본격화	31
3) 패권 경쟁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38
제 4 절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42
1) 남·북한이 인식하는 안보위협	42
2)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	43
3) 북한의 대외 협력체계 강화 제한	43
제 3 장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찰	45
제 1 절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증강	45
1) 전략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ive Damage, WMD)	45
2) 재래식무기 변화사항	49
제 2 절 북한의 군사위협 전망	54

1) 물리적 영역	55
2) 비물리적 영역	58
제 4 장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	62
제 1 절 다자협력체계 강화	62
1) 경제협력 강화	62
2) 군사협력 강화	63
제 2 절 국방혁신 4.0 추진	66
제 3 절 한·미동맹에 입각한 다자협력체계 확대	69
제 4 절 북한군 전략무기 대응체계 구축	72
제 5 장 결 론	7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5
제 2 절 연구결과 시사점	78
1)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78
2)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79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79
참 고 문 헌	82
ABSTRACT	90

표 목 차

[표 2-1]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 간 러시아가 제시한 6개 항목	5
[표 2-2]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군축조약 종류와 탈퇴 시기	7
[표 2-3] 우크라이나 지원 및 지원 예정 방공무기 시스템	17
[표 2-4]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美 전략서	28
[표 2-5]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계획	30
[표 2-6] 시나리오별 미·일·중 공군, 해군 예상 손실	38
[표 2-7] 인민해방군 대만 침공에 따른 미국 참전 시 승리 조건	38
[표 3-1]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횟수	50
[표 3-2] 2023년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50
[표 3-3]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북한이 직면한 과제	56
[표 4-1]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요 내용	65

그 립 목 차

[그림 2-1] 러시아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점령지역 변화	6
[그림 2-2] 국가별 우크라이나 국방원조 비율, 지원 중장비 그래프	9
[그림 2-3] 폴란드 국민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설문조사	11
[그림 2-4] 러시아 BTG 편성	16
[그림 2-5]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	18
[그림 2-6]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방법	19
[그림 2-7] 벨푸어 선언 이후 이스라엘 영토 변화	23
[그림 2-8]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32
[그림 2-9] 중국 A2/AD 전략 및 해양 도련선	33
[그림 2-10]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	34
[그림 2-11] 강군몽(強軍夢) 및 대만 침공 로드맵	36
[그림 2-12] 인도-태평양 지역 미 주둔군 및 순환군 배치도	39
[그림 2-13] 글로벌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 선도 회사 및 향후 전망	41
[그림 3-1] 북한 핵 실험 현황	48
[그림 3-2] ‘화산-31’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 현황	49
[그림 3-3] 2020~2022년 북한 열병식 식별 신형 주요 무기	52
[그림 3-4] 셋별-9형 주요 제원	53
[그림 3-5]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위치	59
[그림 3-6]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 해킹 체계도	62
[그림 4-1]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중점	67
[그림 4-2] 전 영역 통합작전 개념도	68
[그림 4-3] 대한민국과 북한을 앞세운 열강의 대립 형상화	70
[그림 4-4] 남·북한 군사정찰위성 제원 비교	7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정세의 복잡성과 지역별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은 예로부터 존재했지만, 2020년 이후 세계는 더욱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현대화를 앞당겼지만, 전 세계적 확산과 수많은 희생자들은 모든 국가들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시켰다. 코로나19의 순기능으로, 4차 산업의 산물인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같은 원격기술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무력함을 지켜봐야만 했으며, 국제공조의 실패와 그에 따른 각자도생(各自圖生)식 민족주의와 이기주의를 겪어야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대화된 사회는 지정학적 중심의 거버넌스가 미래에 기정학(Tech-Politics)적 시대로 바뀔 것을 예고했다. 지리적, 위치적, 물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 사회 질서가 점차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코로나19를 통해 전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거버넌스가 기정학적일지라도, 현재 국제 사회의 질서는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해양력의 확보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며, 국가 간 이권을 위한 경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쿠릴열도 분쟁, 중국 중심의 해양 국경선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대에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의 산발적인 테러리즘은 그들에겐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舊 냉전 시대 이후로 세계를 급격히 이원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시금 응집했으며, 안보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다자협력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은 세계에 수십 가지 전훈을 남겼으며, 중국의 패권국 탈환 의지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높아

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민들로부터 입지가 약해진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이후 경제발전과 중국몽(中國夢) 달성을 위해 대만 통일의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민심을 얻고자 했다. 중국은 국가 운영이 비슷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승리하지 못하고 국제 사회의 각종 비난과 더불어 전투력 운용에 보였던 허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며, 기동화·현대화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People's Liberation Army, PLA)을 준비하여 장차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여러 국가와 경제적 연결고리를 이어 전쟁의 명분과 전투의 템포(Tempo)에 제한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맺은 것처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의 강화와 경제적 제재를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정세에도 변화를 주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가 인식하는 안보의 위협은 커졌으며,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실험은 대한민국을 각종 군사·경제 협력체에 소속되도록 유도하였다. 이전부터 국제 사회의 입지가 좁았던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해 핵보유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 통일을 시도하는 시점 전후로 대한민국과의 마찰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연구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한 국제 사회의 변화를 확인하고, 정부 기관과 각종 협의체에서 발표한 문헌을 통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적 위협과 새롭게 예상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을 기점으로 이어진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사건의 경과를 통해 분석했다, 둘째, 각 사건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으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확인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강화된 북한의 군비증강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의 물리·비물리적 군사 위협이 무엇일지 연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향후 대응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된 국내·외 기사들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외 권위 있는 전문기관, 군사·경제협약체의 각종 단행본, 학술지, 개념서 및 합의문 등을 참고하여 세계가 인식하는 위협·대응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정부 문서와 분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식하는 위협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예측했다. 공개된 자료 外 군(軍) 내에서 발간한 대외 유출 금지자료, 비공개 자료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제외했으며, 일반적인 범위의 자료로 연구하여 작성했다.

연구 구성은 총 5장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제1장은 서론으로, 국제정세에 따른 세계의 변화와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구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했다.

제2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국제정세 변화 동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동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제3장은 북한의 동향과 군비증강 실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제4장은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근거로 현재 및 미래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설명하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작성했다.

제 2 장 국제정세 변화 동향

제 1 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

2022년 2월,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과 수도인 키이우(Київ) 지역으로 침공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경쟁 관계 속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시도로 인한 NATO 진영의 동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이하 ‘WTO’)가 설립되어 냉전 시대에 돌입했고, 자유 진영의 승리와 동시에 WTO는 해체되었지만, NATO는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를 받는 러시아에 있어 미국과 NATO의 존재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특히, 舊 소련 시대 아시아지역을 호령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시도는 러시아 안보에 거대한 위협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러시아가 흑해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대서양 일대 해양력(Sea Power)을 갖춰 NATO로부터의 제재를 타개하고자 했다. 2014년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단에 있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탈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폭정과 크림반도 주민들의 해방을 명분으로 침공했지만, 그 이면은 흑해에서의 해양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다. 舊 소련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면서, 러시아의 4대 함대¹⁾중 하나인 흑해함대를 세

1) 러시아의 4대 함대 : 칼리닌그라드 발트함대, 무르만스크 북방함대, 세비스토폴 흑해함대,

바스토폴 군항에서 운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바스토폴 군항을 러시아가 이용 중이긴 했지만, 확실한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빙하로 덮인 북극해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로는 해양으로의 진출의 한계가 있다. 반면, 세바스토폴 군항의 탈환으로 흑해를 확보하면 지중해를 넘어 대서양으로 진출 가능한 항로가 생기고, 서방 국가들의 각종 제재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인 활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성공한다면, 지정학적으로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며, 크림반도 이용에 대한 자유도 또한 높아진다. 때문에, 그로부터 8년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 후 약 1개월 뒤인 3월 10일, 푸틴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6가지 항목 중 하나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내걸어 흑해에 대한 주도권을 얻고자 한 것이다.

[표 2-1]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 간 러시아가 제시한 6개 항목

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거부와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
②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제한에 관한 모든 법률
③ 크림반도를 완전히 러시아에 귀속
④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독립 승인
⑤ 우크라이나의 탈 나치화
⑥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비무장화

* 출처 : 이진희. (2022). 러-우크라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초안 나왔다? - 이스탄불 협상 일찍 끝나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적 영향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비슷한 양상으로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예상과는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생각보다 더욱 거셌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그림 2-1] 러시아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점령지역 변화



〈2022년 3월 기준〉

〈2023년 11월 기준〉

* 출처 : ISW - (2022~2023) Russia's Invasion of Ukraine

개전초 1개월 만에 러시아는 동부지역 대부분과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국경 일대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수도 키이우 점령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NATO 회원국들의 지원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북부지역을 모두 탈환하고, 돈바스 지역 일부와 남부지역 드니프로 일대 전투에서 다수의 승리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쌍방 간 방어가 견고해져 원거리전 위주 전투로 전환되고, 전선의 고착으로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또한, 가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얹힌 국가 간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NATO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군사 및 경제지원의 한계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전투 외에는 전황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 후반기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고, 세계의 예상을 깬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들은 전 세계의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지 작전을 통해 개전 초기 단계부터 주도권을 가져온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양상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의 군축 협정 파기에 따른 타 국가들의 군비통제 변화

러시아가 침공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NATO의 동진과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고, 흑해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2년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주변국들이 느낀 안보 위협에 따른 군비 강화를 유도했다.

(1) 러시아의 군비 강화를 위한 군축 협정 파기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각종 군축 협약을 통해 상호 간의 군비를 통제하여 평화를 약속했지만, 러시아는 전쟁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차후 국방력 강화를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러 군축조약의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효력이 중단된 조약은 아래와 같다.

[표 2-2]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군축조약 종류와 탈퇴 시기

구분	CFE ²⁾	CTBT ³⁾	New START ⁴⁾
러시아 선언 일자	2023.11.7. 탈퇴	2023.11.2. 비준 철회	2023.2월 중단 선언

* 출처 :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참고로 재정리

미국과 舊 소련 간 체결한 지대지미사일에 대한 군축조약인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을 2019년 양국이 동시에

2)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조약) : 1990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서명된 조약으로 NATO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 쌍방 간 재래식 무기 보유 목록과 수량을 제한한 협정

3) Comprehensive Test-Ban Treaty(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 : 1996년 UN 총회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모든 핵실험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중·인도·북한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조약

4)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 : 1991년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START 협정에 이어 2010년 美 오바마 前 대통령 주도로 실시한 새로운 포괄적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핵 탄두수와 미사일과 폭격기의 수량을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21년 조약에 대한 5년 연장을 합의했다.

탈퇴한 지 4년 만인 2023년 한해에만 군축조약 3개가 동시에 무효화 되었다. 2021년 연장하기로 했던 New STAR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간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 확대를 위해 파기했으며, 핵실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CTBT에 대한 비준을 철회했다.

또한, 2023년 11월 7일 러시아는 CFE까지 탈퇴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도를 드러냈다. 이전 핵 관련 조약 탈퇴도 큰 위협이기는 하나, 러시아조차 핵 무기의 사용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즉, 핵 관련 군축조약 철회는 잠재적 위협이며,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기에선 시기상조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CFE의 탈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NATO 회원국과 러시아 주변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의 국방력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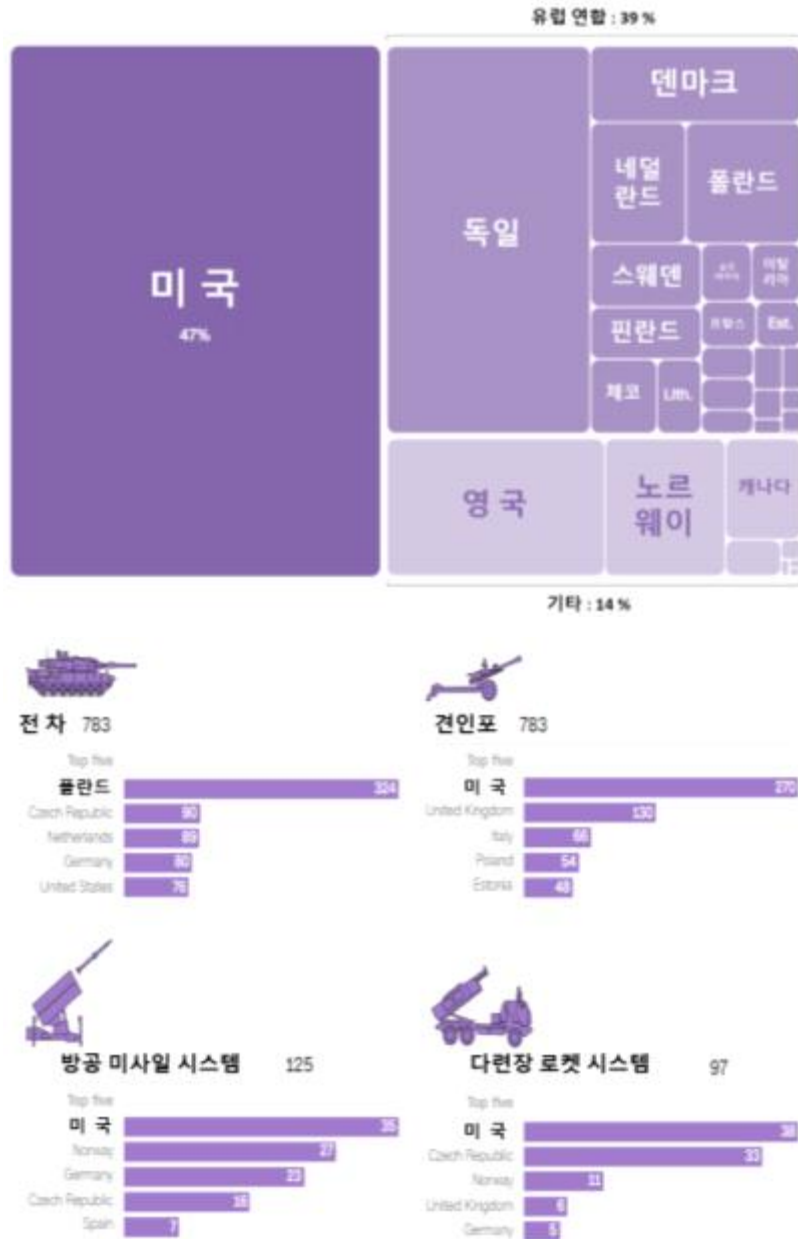
NATO를 포함한 서방 국가 및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NATO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국가⁵⁾이며,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50% 이상의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은 ‘사할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서방 국가도 군사·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와 NATO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국가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보호를 위해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서방 국가들은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국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1월 이후로 서방 국가로부터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55조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미국이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 무기로는 전인포 783대, 방공 시스템 125대, 다련장로켓 97대이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의 지원 장비인데, 대부분 장비는 역시 미국이 원조했지만, 783대의 전차 중 324대를 폴

5) 철광석 매장량 : 세계 1위, 석탄 매장량 : 세계 6위

란드가 지원했으며, 우크라이나 피난민지원도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용지원과 인원을 수용했다.

[그림 2-2] 국가별 우크라이나 국방원조 비율, 지원 중장비 그래프



* 출처 : CNN. (2023). Ukraine aid : Where the money is coming from, in 4 charts를 참고로 연구자가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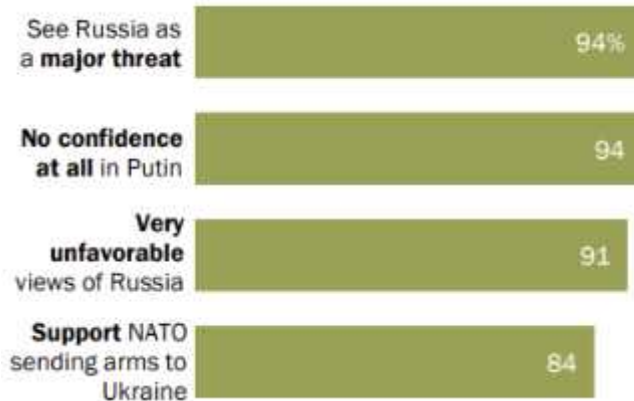
위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서방 국가 대부분이 러시아의 침공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국경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폴란드의 안보 위협은 다른 국가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했다는 방증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3) 폴란드의 군비 강화

유럽의 강대국들과 미국의 원조로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이 강화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는 군비를 강화하여 자위력을 높였다. 러시아의 침공은 반대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스의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는 서유럽과는 달리,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었다. NATO 회원국 대부분이 GDP의 2% 이하 비율로 국방비에 할당하는 반면, 그리스와 미국만이 3%대 예산을 할당했으며, 폴란드도 2023년 내로 국방비를 GDP의 3%로, 병력을 30만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폴란드 군비증강 법안(Homeland Defence Act)을 발의했다. 그리고 올해 초 폴란드는 국방비의 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높여 동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애초에 폴란드와 러시아는 17세기 폴란드-러시아 전쟁(가짜 드미트리전쟁), 프로이센-오스트리아-러시아에 의한 폴란드 국토의 3차 분할, 1939년 소련의 폴란드 침공, 1940년 소련의 카틴 학살과 같은 역사적 악연으로 인해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폴란드 안보 의식의 역치값⁶⁾을 급격히 낮춘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 소련 시절부터 자국을 위협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가까워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처럼 폴란드의 국가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폴란드 국민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6) 역치(Threshold Value, 閾値)란 생물이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뜻하는 과학 용어이다(출처: 두산백과). 연구자는 이를 안보와 결합해 러시아의 군사 행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폴란드에 대해 “안보 의식의 역치값이 낮아졌다”고 표현했다.

[그림 2-3] 폴란드 국민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설문조사



* 출처 : Pew Research Center's Global Attitudes Project. (2022). Spotlight on Poland Negative Views of Russia Surge, but Ratings for U.S., NATO, EU Improve

‘러시아가 주된 위협이다’, ‘푸틴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러시아에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 폴란드 국민의 표본집단 중 각각 94%, 94%, 91%의 비율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양국 간 역사적인 악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폴란드 국민의 우려가 투영된 결과이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무기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84%가 지지하였다. 실제 폴란드는 개전 초 약 16억 달러, 22년 6월 환율 기준 한화로 약 2조 8백억원 가량의 전차 200대를 포함한 군사 지원⁷⁾을 했다. 애초에 폴란드는 군 현대화 계획⁸⁾을 통해 강하고, 기동화되고, NATO와 협력 가능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여러 국가와 방산 계약을 통해 2022년 무기 수입국 상위 40개국 중 26위를 차지하는 등 자국의 국방력도 강화했다⁹⁾. 이렇듯,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인접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의 원조와 국방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군비가 증가한 결과를 초래했다.

7) Alzazira. (2022). Weapons to Ukraine: Which countries have sent what?

8) POLAND MILITARY MODERNIZATION PLAN

9) Pieter D. Wezeman, Justine Gadon and Siemon T. Wezeman. (202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2

나) 유럽 및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력 강화

NATO의 동진과 확장을 막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지만,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를 공동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NATO 세력의 크기와 전력은 물론,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 되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과 사회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결속력을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1) NATO 가입국과 협력세력 증가

NATO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원국의 동의를 거치는 등 1년 가까이 걸리는 가입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경우 NATO에 가입 의사를 밝힌 직후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전선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시기를 틈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이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조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으나, 결국 2023년 스웨덴의 NATO 가입 찬성 의사를 밝혔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NATO 회원국은 기존 29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1959~) NATO 사무총장은 핀란드의 가입을 ‘역사적인 날’이라 찬사를 보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 제5조¹⁰⁾를 거론하며 핀란드의 철통같은 안보를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NATO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높아지는 안보 위협에 대한 동맹의 전략을 구체화하여 공동의 인식으로 대비하고자 준비했다.

10) NATO 회원국에 대한 집단방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원 당사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당사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안보 복원 차원에서 개별 또는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공격당한 당사국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2) NATO 2022 전략 개념

NATO 회원국 수의 증가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개월 후 「2022 NATO 전략 개념(2022 NATO Strategy Concept)」이 발간된 것은 NATO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시사한다. 전략 개념의 서론에서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은 평화를 깨뜨렸고, NATO 회원국의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변화시켰다’고 평가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침략 전쟁(War of Aggression)’이라 표현하여 강하게 비판하였고, NATO 회원국의 안보 환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 표현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하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기술하였다. 러시아에 정치·경제·외교적으로 휘둘리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우크라이나를 이번 전쟁을 통해 국가의 독립성을 NATO 차원에서 공인하였으며,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를 방파제로 인식하여 ‘안보에 필수적’이라 표현하였다. 즉, 러시아에 대한 NATO의 인식이 ‘위협’인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의 인식은 ‘억제와 방어’이다.

이에 따라, NATO 동맹국의 주요 과업 3가지를 ‘억제와 방어’, ‘위기 예방과 대처’, ‘안보 협력’으로 정리했다.

(가) 억제와 방어

NATO가 방어 동맹이기는 하나, 영토와 자주권을 위협하는 침략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한 억제, 방어, 대응 및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핵·재래식·미사일 능력과 우주·사이버 능력을 기반으로 안보 위협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재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나) 위기 예방과 대처

NATO 회원국은 동맹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자원과 능력, 교육훈련 및 지휘통제를 재정립하여 적소에 배치하고 군사적 · 비군사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정화작전, 대테러작전 능력을 함양할 것이다. 아프간 파견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 단계로부터 민 · 관 · 군 통합의 계획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다) 안보 협력

위와 같은 ‘억제와 방어’, 위기 예방과 대처를 NATO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토와 자주권 수호를 위해 기존 동맹에 대한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유대를 위해 대화와 협력, 공유를 지속한다. 나아가 보스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과 대서양 일대의 평화, 안정과 안보에 있어 공통된 인식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유대는 NATO가 선도적인 국제기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며,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NATO의 주요 과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NATO에 대한 위협은 회원국이 협력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에 중요한 지역의 국가라면 NATO 차원에서 협력에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이다.

둘째, 그중에서도 러시아를 현재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식이며, 우크라이나 패전시 영향을 미칠 러시아의 흑해에 대한 해양력 · 공중우세 · 러시아 국경의 서진을 우려한 분석과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에 대한 핵 사용에 대한 인식이다. 핵은 평화의 수단이며, NATO 동맹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지향한다고 명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간 러시아가 핵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¹¹⁾을 하면서 핵 사용에 대한 내용을 상당

히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NATO 회원국 중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에 미 핵 전력이 전개되어 있다. 이는 응징적 억제전략(Deterrence by Punishment)을 토대로 한 것으로, 미국의 주도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이하 ‘NPT’¹²⁾) 상 핵보유국¹³⁾으로 인정된 영국과 프랑스의 핵 능력으로 잠재적 적에 대한 안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핵 능력 활용에 있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크지만, 유럽 전역에 있는 핵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동맹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핵 계획 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¹⁴⁾)에 동참하고 있다.

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통해 부각된 인지전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사력 세계 2위를 자랑하던 러시아는 각종 전투 간 고전을 면치 못해 국제적인 위상을 잃었다. 다양한 상황별 러시아의 패전이 있었지만, 세계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고 중국이 벤치마킹하는 기동화된 집단군 편성과 대대급까지 전투참모단이 구성된 대대전술단(Battalion Tactical Group, BTG)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BTG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대대급 전투력이 높다고 평가했고, 중국은 모든 전구사령부 예하의 집단군을 러시아의 BTG를 기초로 재편했다. 하지만, 러시아 전쟁에서 BTG의 실상은 예상과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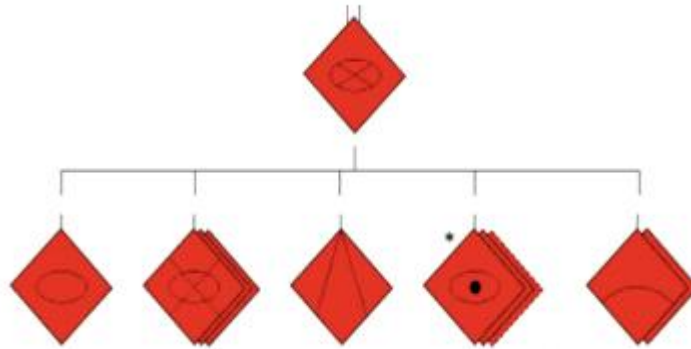
11) 2022년 3월 2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간 상황에 따라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1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을 느낀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추진하자 NATO 영역의 확산에 다급해진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9년 UN에서 처음 체결되었으며, 1970년에 비준이 완료되었다. 대한민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13) NPT에 명시된 ‘핵보유국’으로 명시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 1967년 UN에 NPT가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 핵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발시킨 국가이다.

14) NATO 동맹국의 국방장국들로 구성된 기구로, NATO의 핵전략을 공동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미국과 동맹국의 핵 전력을 유럽 본토에 배치하고 공유하여 NATO에 안보위협에 대응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2-4] 러시아 BTG 편성



* 출처 : Vonjo delo. (2021). Battalion tactical groups of the Russian Armed Forces in the altered physignomy of modern conflicts

전차 · 기계화보병 · 대전차 · 자주포 · 다련장포병 · 방공포중대로 편성된 러시아 BTG는 전투참모단 구성과 기동 · 화력 구성을 극대화하여 대대 단위 작전 여건이 보장된 반면, 공병 · 지속지원과 같은 부대의 미편성으로 작전의 지속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편성은 각종 전술 기동, 도하작전 간 교전 잔해물 · 화구 · 장애물에 대한 조치의 지연으로 부대가 정체되어 드론에 의한 큰 피해를 받았다. 러시아 BTG의 취약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는 효과적인 대기동 작전을 통해 러시아 기갑/기계화부대를 무력화시켰고, 러시아의 공격을 지연시켜 서방 국가의 지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수많은 육군항공부대와 공군 전력은 우크라이나가 원조받은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방산업체인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National Advanced Surface-to-Air Missile System, NASAMS)’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4대를 더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역시 ‘적외선 영상 유도 미익-추력편향 조종 미사일(InfraRed Imaging System Tail/Thrust vector-controlled, IRIS-T)’를 지원하였으며,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의 ‘지대공 중거리 미사일(Sol-Air Moyen ne Portée/Terrestre, SAMP/T)’에 대한 관심을 보여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¹⁵⁾

15) Alex Horton. (2022). Ukraine wants more air defense. Here's how it works.

[표 2-3] 우크라이나 지원 및 지원 예정 방공무기 시스템

구분	美 NASAMS	獨 IRIS-T	佛 SAMP/T
지원 대수	2대(4대 추가 예정)	4대	배치 검토
유효사거리	50km	25km	30km
주요 기능	RADAR 추적	적외선 영상 탐색	KA/KU-Band 대역 추적

* 출처 :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참고로 재정리

이렇듯,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전력에서도 열세하였으며, 핵 위협 또한 앞서 이야기한 NATO 전략 개념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불리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인지전의 영역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된다. 전장이 다영역화 되고, 물리적·비물리적 피해의 융합은 전투 효과를 상승시킨다는 개념은 지속 되어왔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MDO)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하이브리드전보다 실행과 목적의 측면이 강조된 ‘인지전’이라는 개념을 주목했다.

하이브리드전이 물리·비물리적 영역의 복합이라면, 인지전은 비물리적 영역 중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시행한다. 하버드 벨퍼 센터에서는 논문을 통해 인지전을 “표적인 대중의 생각을 바꾸고 결국 이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둔 전략”¹⁶⁾으로 정의했고, NATO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동 연구 문헌에서 “인지전은 적이 내부에서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인지전의 정의는 ① 공공 및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고, ② 공공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외부에 의한 여론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Public Opinion)¹⁷⁾”라 명시했다. 이는 전·평시와 군사·비군사의 영역을 넘나드는 중요한 영역이며, 전쟁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짓는 개념이다.

16) Oliver Backes, Andrew Swab. (2019). Cognitive Warfare - The Russian Treat to Election Integrity in the Baltic States (Harvard'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17) Alonso Bernal, Cameron Carter, Ishpreet Singh, Kathy Cao, Olivia Madreperia (2022) Cognitive Warfare -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NATO, Johns Hopkins University)

[그림 2-5] 하이브리드전과 인지전



* 출처 : 연구자가 각주 27) 내용을 참고로 작성

그림과 같이 비물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인지전은 심리전/군사정보지원작전¹⁸⁾, 전자기전¹⁹⁾, 사이버전, 정보전의 특징을 모두 내포한다. 인지전은 대중의 유행과 데이터를 사용하고,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정보의 순환을 통제 또는 유도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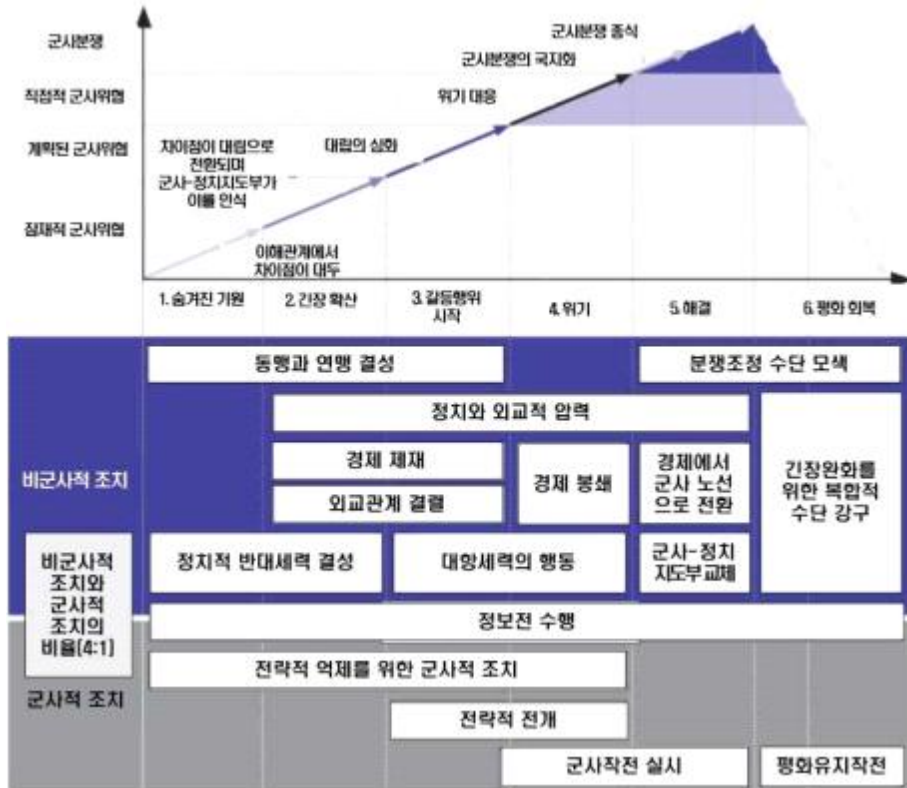
러시아는 기존부터 하이브리드전의 선구자였으며, 일찍이 인지전의 중요성을 깨달아 ‘게라시모프 독트린²⁰⁾’ 발표를 통하여 “현대전은 전·평시와 적(敵)·아(我)의 구분이 모호하여 전쟁 수행의 주체가 불분명해질 것이며,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실전에 하이브리드전을 적용하여 개전 초기부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가운데 전투를 수행했다.

18) 군사정보지원작전(Military Intelligence Support Operation, MISO) : 2014년 美 합동교리에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군사용어 상 기존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군사정보지원작전’으로 대체하여 표적의 심리적인 영향을 넘어 태도, 역할, 규범, 신념, 관행 등에 영향성까지 고려한다.

19) 전자기전(ElectroMagnetic Spectrum Operations, EMSO) : 2020년 美 합동교리에서 기존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이라는 용어를 전자기전으로 대체하여, 전자기 스펙트럼의 영역으로 확장된 작전을 포함했다.

20) 게라시모프 독트린(Gerasimov doctrine)이란 2013년 당시 러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1955~)의 저서를 통해 하이브리드전을 정의하고, 이를 실제 군사작전에 도입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그의 이름을 붙인 교리·정책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6]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방법



* 출처 : Charfles K. Bratles. (2016). Getting Gerasimov Right(Military Review),
서현태. (2022).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전 수행방안 연구 : 게라시모프 독트린을 중심으로」

그림과 같이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의 비율을 4:1로 산정하여 군사작전만을 실시했을 때보다 정치·경제·외교·언론에 영향을 주는 등의 사회적 혼란과 결합할 때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주민들의 지지와 투표를 통해 명분을 얻고,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규탄으로 그치도록 유도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빼앗긴 요인 중 하나로 2013년 발표한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하이브리드전, 그중에서도 비군사적 영역을 러시아가 적극 활용하여 군사적 승리와 정치·외교적 승리 또한 쟁취한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때문에, NATO에 가입하기 희망하였던 우크라이나는 NATO의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과 ‘인지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군사적인 방어는 물론 SNS·미디어·인터넷을 활용한 인지 작전에 더 크게 성공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친러 반군의 피해를 조작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가스와 석유와 같은 자원을 무기화하여 NATO 및 서방 세력의 개입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여론을 통해 러시아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여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상황 오판을 유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으며, 개전 초기 러시아의 인지 작전의 성공으로 모두가 러시아의 단기간 점령을 전망했다.

반면, 개전 이후의 인지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여 지금까지 전황을 이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개전 초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의 신변을 위해 수도를 버리고 떠났다’는 러시아의 뉴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투의지를 꺾고자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직접 영상을 찍어 ‘목숨을 바쳐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결속은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피침략국 통수권자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또한, SNS·인터넷 방송을 통한 80회 이상의 대국민 연설과 24개국 이상의 국회와 화상 연설을 통해 국내·외적인 지지를 얻었다. 아무리 타국의 이해관계가 얽여 있다고 해도, 젤렌스키의 적극적인 인지 작전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받은 군사적 원조는 없었을 수도 있다.

또한, 전쟁 실황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전투 사례를 홍보하여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희망을 걸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했다. 또한, 러시아의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알려 러시아의 전쟁법 미준수 사례를 폭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포로에 대한 온정적인 모습을 보여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명백한 선악의 대립 구도로 인식하게끔 유도했다,

러시아의 만행들이 유튜브,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각종 언론을 통해 전파되어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러시아군이 언론을 통해 보여준 행위들은 헤이그 협약의 제2협약 군사적 필요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화학무기·백린탄·열압력탄과 같은 화학무기 사용은 제4협약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민간인 사살·고문·강간과 같은 행위는 제네바협약의 구별·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

다. 우크라이나 또한 전투 과정에서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러시아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사행동은 국제 사회의 정당성을 얻은 반면, 러시아의 행위는 그렇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인지 작전은 자국과 국제 사회는 물론, 러시아 내부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인지 작전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결사 항전의 의지를 고양하여 모든 연령대 국민이 입대를 자처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민조차 푸틴의 결정을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인식했다. 군사 훈련 명목의 전술 기동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족의 희생과 잦은 패전보는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푸틴이 총동원령을 선포했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무의미한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은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병역기피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같은 주변국으로 도주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군비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다자국의 협력의 중대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간 동맹, 조약, 협력체계의 중대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NATO의 동진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가 전세계적으로 보여준 전훈은 ‘인지전’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도에 비해 서방 국가들은 무기, 군수물자 지원에 그쳤다. 자국민의 피해는 줄이는 가운데 종전을 바라기 보다 국가별 실리를 챙기는 모습에 가까우며, 서방 세력과 공산국가 간 ‘대리전’에 가깝다. 대리전의 양상은 최근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비슷하게 보인다.

제 2 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배경

기원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팔레스타인)은 종교적 갈등으로 현재 이스라엘 국토인 가나안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新 바빌로니아제국과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유다의 자손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現 유대인)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결국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 영토를 빼앗긴 채 가나안 지역에는 과거 일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혼재되어 살았다. 시간이 흘러 타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은 ‘시오니즘(Zionism)²¹⁾’을 앞세워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7세기 오스만제국 시절에 이루어졌다. 세브르 조약²²⁾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령 영토가 되었으며, 유대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한 영국은 벨푸어 선언²³⁾을 통해 해당 지역에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을 지지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 토지를 분양받아 정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영국이 팔레스타인 정착민과도 똑같은 내용을 2년 전 1915년에 맥마혼 선언²⁴⁾을 통해 이중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결국, 1차 세계대전부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

21) 1893년 유대인 대학생 지도자 나탄 비른바움(Nathan Birnbaum)에 의해 처음 등장한 단어이며 19세기 말 유대인 혈통의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퓔스(Alfred Dreyfus, 1859~1935) 대위가 독일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타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민족주의 운동이다. * 출처 : 위키백과

22) 세브르 조약(Traité de Sèvres)은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 프랑스 세브르에서 연합국과 오스만 제국과 체결한 오스만 제국 분할 협정. * 출처 : 위키백과

23)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이란 1917년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가 유대인 대표 월터 로스차일드(Lionel Walter Rothschild)에게 보낸 서명한 문서이며, 유대인의 시오니즘을 영국이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 출처 : 위키백과

24) 맥마혼 선언(McMahon Declaration, 1915)이란 당시 국방 무관이었던 헨리 맥마혼 경(Sir Vincent Arthur Henry McMahon)이 메카의 군주였던 후세인 빈 알리(Hussein bin Ali Al-Hashimi)에게 비밀협상을 제안하여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국가 지역에 독립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이다. * 출처 : 위키백과

작되었고, 잦은 영토 분쟁이 이어졌다. 영국은 이를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고 UN에 책임을 이양했으며, 두 세력 간 종교적 문제와 영토 분쟁은 중동전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안(Westbank) 지구와 가자(Gaza) 지구로 나뉘어 기원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이 현대까지 이어졌다.

[그림 2-7] 벨푸어 선언 이후 이스라엘 영토 변화



* 출처 : Mohammed Haddad. (2021). Mapping Israeli Occupation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배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령 간 상호 합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상이 유지되다 보니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993년 오슬로 협정 이래 이스라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파타(Fatah) 정당의 서안 지구와는 달리, 하마스(Hamas) 정당의 가자지구는 ‘反 시오니즘’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쏘 지역을 되찾고자 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반대 이념을 가진 하마스 정당이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과 파타 정당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는 결국 이중 권력을 갖게 되었다. 서안지구는 정치·경제·군사적 협력이 이스라엘과 원활했던 반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군사적 대치·정착촌 철수·국경 봉쇄로 현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365km² 내에 약 240만 명이 장벽에 갇혀 살고 있다²⁵⁾.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뿔뿔히 떨어져 살다 보니 가자지구 거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3차례의 가자 전쟁이 발발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미사일 포격과 공습으로 서로가 군사적 도발을 지속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비교해도 이번 가자지구의 포격과 테러는 이례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이란과 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서방 국가의 지지를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란을 견제하기에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외교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는 고립된 하마스 정당의 존립을 흔드는 사항이기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에 대한 공습과 민간인 취약계층까지 납치한 하마스의 군사행동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이 기회를 통해 가자지구를 완벽히 함락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으며, 이스라엘의 ‘철검(Iron Swords)작전’과 하마스의 ‘알 아크사 홍수작전’으로²⁶⁾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3)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의 차이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 발발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 진영 모두가 우크라이나의 전훈에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전쟁 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훈을 적극 활용하여 전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전략도 국가의 역사적 상황과 국제 사회 인식의 차이로 다른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전훈은 ‘인지전’의 중요성이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당 양 진영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제는 인지전을 위한 인지전을 위해 작전 간 민간인을 앞세워 민간인

25)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 이후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은 하마스 정당을 테러단체로 간주한 반면, 시리아, 북한,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중국,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 및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한다. * 출처 : 위키백과

26) 정철환. (2023). 사상자 1,000명 넘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철검’ 보복 작전 개시, 서울 : 조선일보

피해가 인위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들었고, 역사적으로 서로가 종교적 안식일을 이용하여 공격하거나 불필요한 희생과 테러를 자행했던 역사로 인해 그들이 언론에 외치는 서로의 만행은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한, 전쟁에 임하는 자국민들의 의식 또한 차이가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결사 항전의 태세를 갖췄고, 러시아 국민은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등 양국의 국민적 공감대가 다르다. 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종교적·역사적·영토적 갈등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가 견잡을 수 없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 작전의 성과로써 내부의 분열을 기대하기 힘들다. 인지전에서의 성과가 서로 없다 보니 국제 사회의 개입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크지 않다. 아랍 국가의 지원을 기대한 하마스였지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국가인 이집트에게 팔레스타인 난민은 골칫거리이다. 하마스 정당의 편인 이란 역시 군사 개입을 시사하긴 했지만, 전면전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 개입이 없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뚫고 가거나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거쳐 가자지구를 지원하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같은 아랍인인 하마스를 지지하지만,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원하기에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다.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세력은 사실상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뿐이며, 이란의 지원도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이지 가자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NATO의 최대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긴밀하긴 하나, 아랍국가와의 관계성도 중요한 미국을 고려하면 자국 항공모함 배치 이외에 직접적인 개입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인지전의 성공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실에도 기반하기 때문에 양 진영이 앞다투어 주장하는 민간인 피해에 공감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비해 지정학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미국 정치권에만 중요한 이슈로 전락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국제 사회의 영향은 소규모 지원에 의한 대리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개입 국가의 평판만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이스라엘·하마스 지지 세력 모두에게 섰다고 보인다.

제 3 절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권국과 주변국 간 갈등으로 생기는 영향력을 보여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지지 세력이 극명히 갈리는 주변국 분쟁에 대한 지지 세력의 반응을 보여준다면, 패권 경쟁을 하는 국가로 인해 생기는 국제 사회의 영향력은 조금 더 복잡하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꾸준히 지속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양국의 패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 강화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쿼드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실질적으로 세계까지, 우리의 미래는 향후 10년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지속과 번영에 달려있다”고 연설했다. 그만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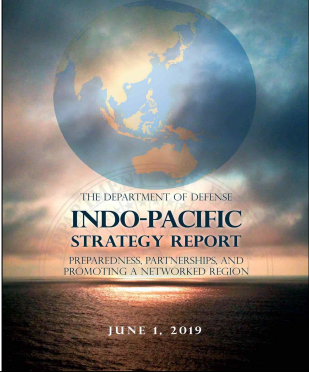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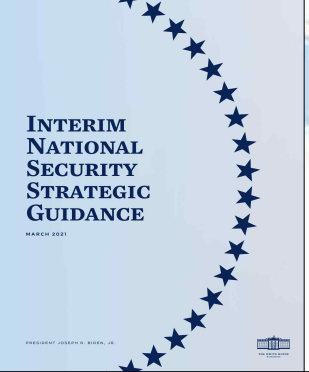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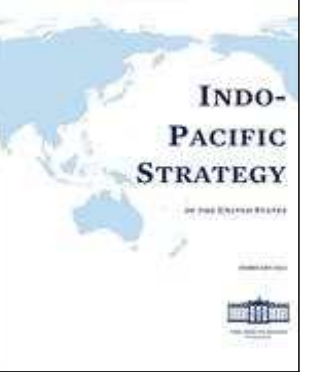
인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으로 세계 무역의 50%가 해상을 통과하고 있고, 세계 GDP의 62%가 유통되며, 세계 인구의 64%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남중국해에 있는 천연자원은 석유 280만 배럴, 천연가스 7,500km³가 매장되어 있고, 전 세계 어획량의 10%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 도련선 전략²⁷⁾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이권을 얻고자 하며, 영국 또한 인도-태평양 틸트²⁸⁾를 통해 영국 진출의 영역을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사회·안보적 관점에

27) 도련선(島聯線, Island Chain) : 섬들을 이어서 방어선을 확보한다는 중국의 해양 전략으로,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부터 방어 거점을 구축해 해양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개념

28) 인도 태평양 틸트(Indo-Pacific Tilt) :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후 외교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기조

서,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 대척점을 이루며 새로운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도부터 기밀문서였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 발표하고 있으며, 각종 전략서를 통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점을 해마다 제시하고 있다.

[표 2-4]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美 전략서

구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미 국방부 / 2019)	국가안보전략 잠정안 (미 백악관 / 2021)	인도-태평양 전략 (미 백악관 / 2022)
전략서			
위협 인식	· 중국 : 수정주의 세력 · 러시아 : 회생한 악당 · 북한 : 불량 국가 · 이란, 시리아 등 : 초국가적 위협	· 중국 : 유일한 경쟁자 · 러시아 : 국제 사회의 분쟁주의자 · 북한/이란 : 미국과 동맹의 지역안정 저해	· 중국 -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어가는 중 - 위협 행위를 일삼음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함
대응 방안	· 전략 자산을 통한 대비 · 파트너십 확장 · 다자협력을 위한 조약	· 동맹 네트워크 강화 · 전 전략사령부의 군비증강	· 지역 내·외부 연결망 구축 · 지역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체 구축 ·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체 구축

* 출처 : 미 국방부 / 백악관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이지만, 전략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과 대응에 있어 해마다 차이를 보인다. 기존에는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각각에 대응을 고민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초점을 중국에 맞추고 있으며, 다른 위협들은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2021년 국가안보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SSG)을 통해 최초로 범위를 좁혔으며, 국방부에서 작성하던 보고서의 형태를 백악관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위협과 미국의 대응 인식을 노골적으로 발표했다. 2022년 백악관에서 발표한 전략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요

보고서의 서두에서 “바이든 대통령 정권의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장기적 입지를 강화할 결심이 서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산적한 도전’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최고의 열강이 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으며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이 규칙과 표준 변경에 성공할지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동맹과의 공동전선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혔다.

나) 추진계획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①자유롭고 개방된, ②연결된 ③번영하는 ④안전한 ⑤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 백악관에서는 전략 시행을 위해 향후 1~2년 내 10가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표 2-5]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계획

① 인도-태평양 內 새로운 자원 확보	②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③ 억제력 강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주도
⑤ 인도의 지속적 번영과 지역 리더십 지원	④ 유능하고 연합된 ASEAN 강화
⑦ 한·미·일 협력 확대	⑥ 쿼드 이행
⑨ 올바른 정부 지배와 책임 지원	⑧ 인도-태평양 열도 內 회복성 구축 파트너
	⑩ 개방된, 회복력 있는, 안정적인, 신뢰성 있는 기술 지원

* 출처 : White House,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다) 본문 1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본문에서 “미국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요구하며, 이는 역내 국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공유된 영역들을 법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첫 문장에 언급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제도와 자유로운 언론, 활기찬 시민 사회, 지역의 재정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국가의 영해·영공이 국제법에 따라 지배되고 이용되어야 하고, 핵심 신기술과 사이버 공간이 공통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본문 2 -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주변국들이 함께 공동 역량을 키워 나갈 때만 달성 가능하다”고 첫 문단에 언급한다. 이는 미국이 해외의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주 협업 대상으로 호주·일본·한국·필리핀·태국을 먼저 거명한 뒤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대만·베트남 등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쿼드(Quad²⁹⁾)강화, 태평양 열도 파트너십 구축, 인도-태평양과 대서양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29) 4개국 안보회담(Quadilateral Security Dialogue)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

마) 본문 3 -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 유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도 유도하여 미국의 국익 증진에 교두보로 삼음과 동시에 지역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도를 보였다. IPEF를 통해 새로운 무역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22년 5월 출범 이후 한국 등 13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를 통해 G7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회복성 있고 안정된 글로벌 통신과 5G 공급업체 다양화, O-RAN³⁰⁾기술, 통신 공급 시장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바) 본문 4 - 21세기 변화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 회복력 구축

그 밖에 기후변화, 코로나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지역 회복력 구축을 위해 지구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한 목표, 전략, 계획,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며 감염병 종식 및 세계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ASEAN, APEC, IPEF, 그 외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헌신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고의 위협은 중국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중국에 대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때문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여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기만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바이든 행정부의 환상”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뤄샹(呂祥)’은 “미국이 역내 패권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시들해지고, 유럽 동맹국 사이에서 ‘러시아 위협’에 맞서느라 바쁜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국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논평했다.

30)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 한글로 ‘오픈랜’이라 칭함.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통신 기술을 개방형 표준으로 통일하는 기술, 통신장비 회사마다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적 요소(인터페이스와 운용체계)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개방형 표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함. 오픈랜은 통신 장비 간 연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제 표준화하여 이동통신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더라도 통신장비 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즉 공급업체의 경쟁을 억제하는 독점효과를 피하는 것이 목적

2) 중국몽(中國夢)의 본격화

오랜 세월을 거쳐 국력을 키워온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부터 패권국의 탈환을 목표로 미국과 경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참고하여 중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국몽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군비경쟁이 심화한 즈음에, 미국은 중국을 통해 소련의 패권 경쟁의 패배를 도모했고, 중국은 이를 역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이끌었다. 그 내실을 바탕으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시작된 중국몽은 미국이 가진 패권국의 지위를 뺏고자 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육·해상 교통로를 구축하여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고, 도련선 방어 전략인 反 접근 지역 거부(Anti-Access / Area Denial, A2/AD)를 통해 군사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몽의 일환인 강군몽(強軍夢)을 통해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미국 국방 전력에 대항할 비대칭 전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2-8]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 출처 : Silk Road Briefing. (2018). China's Soft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가) A2/AD 전략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주춤하였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패권국 지위의 중요성을 새삼 체감한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 경쟁을 시사하였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행복몽(幸福夢)은 깨지고, 위구르 신장 지역 탄압과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조화몽(調和夢)과 평화몽(平和夢)을 잊은 듯한 모습이지만, 동북아 지역을 넘어선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픈 중국 공산당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권, 즉 ‘해양력’이다. 즉, 중국은 지금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적 확장보다 A2/AD의 실현을 통한 군사적 관점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림 2-9] 중국 A2/AD 전략 및 해양 도련선



* 출처 : James Stavridis. (2019). 『China's Military Seeks New Islands to Conquer』

위 그림과 같이 제1도련선을 통해 동 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력을 장악하고, 제2도련선을 통해 필리핀해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중국해로의 진입하는 모든 안보 위협을 관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3도련선을 통해 괌, 하와이까지 영향력을 뻗어 미국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목표는 쿼드(Quad)와 같은 동맹을 차치하고서라도,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2-10]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



* 출처 : <https://blog.naver.com/wanna2u/222127400830> - 중국갈때 남중국해 분쟁 지도
조심[남중국해 9단선] The nine dash line

「지리의 힘」 저자 팀 마샬(Tim Marshall, 1959~)은 그의 저서를 통해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도, 중국이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지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2개국과 인접하고 대양 진입에 무리 없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1개의 좁은 해양을 가진 한계를 가졌다. 때문에, 육상과 해양에서의 영토 분쟁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위 그림과 같이 해양에서의 영토 분쟁은 A2/AD 전략을 실현하는데 최대 난제이다.

중국에게 있어 남중국해로부터 인도양을 진입하는 항로를 장악하는 것은 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때문에, 중국은 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artly Islands)에 인공 섬을 지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양으로의 진출과 대양으로부터 외부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태평양으로 나가고 막는 것도 중요하나, 미국의 원조를 받는 대만이 지리적으로 중국의 진출을 차단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타개해야 한다.

나) 대만 통일

이러한 군사 전략적,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은 러시아처럼 대만을 흡수통일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2022년 9월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정상회의에서 “외부 세력의 ‘색깔 혁명’ 책동을 막아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의도를 공식화했다.

2022년은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국가주석 3연임을 위해 정치적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중국 경제는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본인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시점에서 대만 통일에서라도 인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하나, 대만의 결연한 의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뜨겁게 했다. 대만군은 연일 중국의 대상륙 작전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대만과 중국의 군비경쟁은 미국의 무기 지원을 넘어 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검토까지 다다른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 곳곳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진핑 연임 반대 운동이 성행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미국과의 대대적인 경쟁을 선포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반도체 투쟁을 공표했으며,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의 군대로 탈바꿈하여 강군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그림 2-11] 강군몽(强軍夢) 및 대만 침공 로드맵



* 출처 : 연구자가 미 공군. (2023).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내용을 참고로 작성

중국은 2049년 세계 일류 군대로 전면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전 부대의 기동화를 추진하여 쏘 집단군의 기동화 재편을 완료했으며, 전군 현대화 달성 목표연도인 2027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기간인 2030년 이내로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0년 동안을 대만 통일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고 있다. 패권국의 입지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동상이몽으로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 진영의 협력체계를 철저히 이원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이슈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그에 따른 시나리오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 중국의 대만 통일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

중국이 ‘기회의 창’인 2030년 이내로 대만을 흡수통일 할 것을 사실로 가정했을 때,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발표한 인민해방군 대만 침공 시 미-중 전쟁 위게임(War Game) 결과(원제 :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를 참고하면 우리가 직면할 국제적인 안보 위협을 엿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친것과 같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적어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 위게임 진행 - 가정 및 상황

해당 위게임 시점은 ‘기회의 창’ 시기로 상정한 2027년~2030년 사이가 아닌, 2026년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미국이 참전하여 3~4주에 걸친 위게임을 진행했다. 해당 국면에서 ① 북한은 중국의 침공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군사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② 인도, 호주, 베트남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 국가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며 ③ 미군의 중국 본토 공격은 전쟁 확산을 우려하여 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2) 위게임 진행 - 진행 및 경과

총 21개의 시나리오로 24회에 걸친 위게임을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순서는 ① 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이 대만을 포위하여 고립시키고 ②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기지(괌)를 타격하고 ③ 이후 인민해방군 상륙군이 대만 남부지역에 상륙하여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시나리오상 미 항공모함은 개전 후 7일 이내로 2대가 격침되며, 개전초 주일미군이 타격받을 경우, 미군은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한다.

(3) 위게임 진행 - 결과

위게임 결과, 미국은 전쟁에는 승리하지만 피해가 더 큰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³¹⁾)를 취하여 국제적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2-6] 시나리오별 미·일·중 공군, 해군 예상 손실

	전투기 피해(대)				전투함 피해(척)			
	미국	일본	미·일	중국	미국	일본	미·일	중국
기본 시나리오	270	112	382	155	17	26	43	138
최악의 시나리오	484	161	645	327	14	14	28	113

* 출처 : CSIS Tabulation of iteration results

(4) 위게임 결과분석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는 승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필수 조건들을 도출했다.

[표 2-7] 중국 인민해방군 대만 침공에 따른 미국 참전 시 승리 조건

① 대만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전투 지속
② 우크라이나와 달리 전쟁 중에 대만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제한되므로, 전쟁 이전 충분한 군사 지원 필요
③ 대만 방어에 핵심은 일본 : 미군은 작전을 위해 주일미군 공군기지를 활용
④ 인민해방군의 방공전력 극복
⑤ 미군의 최대한 빠른 개입

* 출처 : CSIS Tabulation of iteration results

이러한 승리 조건의 달성을 위해 대만에 충분한 수의 장거리 미사일이 요구되며, 주일 미군과 괌 미군기지를 강화하고, 기동성 있는 대함·대공·대상륙 전력의 보강이 대만에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위게임의 분석 결과는 양 진영의 패권 경쟁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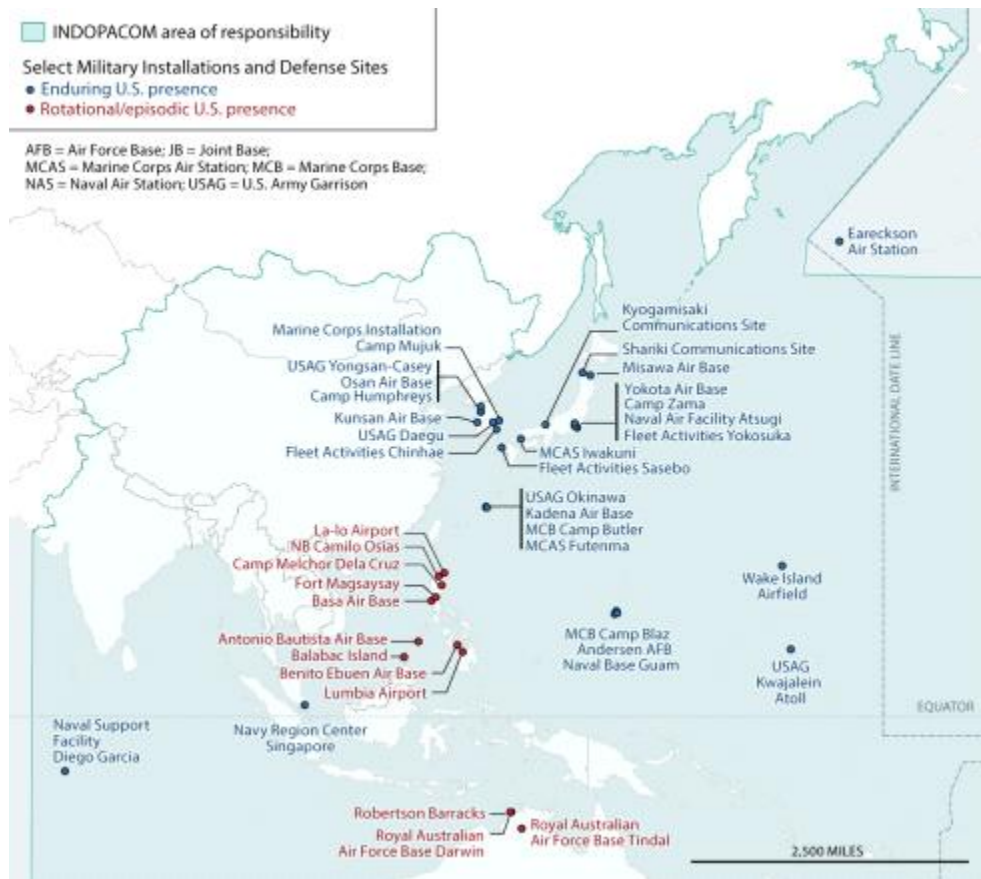
31) 고대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 1세가 전쟁으로 거둔 승리가 많아도 아군의 손실이 너무 커 패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승리를 뜻하는 시사용어이다.

3) 패권 경쟁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가) 미국의 다자 협력체계

과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도왔던 것처럼, 현재 미국은 러시아의 약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NATO는 북대서양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떠오르는 위협으로 중국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림 2-12] 인도-태평양 지역 미 주둔군 및 순환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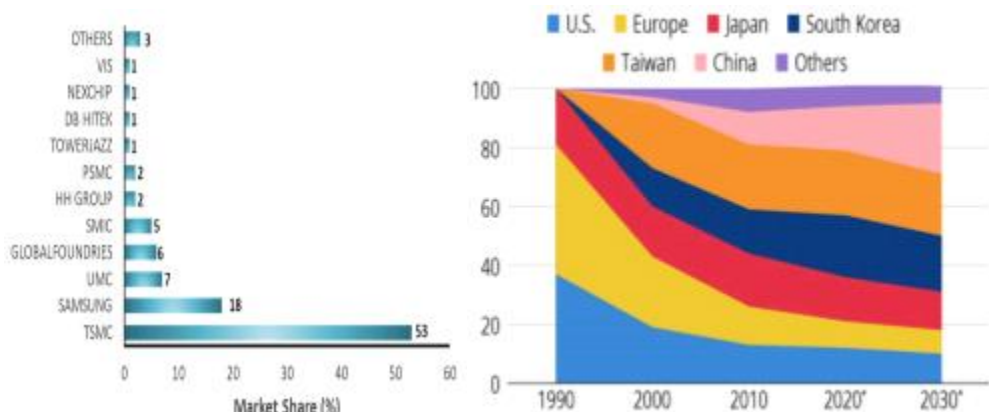
* 출처 : Luke A. Nicastro. (2023). U.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 Back 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January-Februar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그림과 같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영토와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NATO 전략 개념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언급하였고, 이는 중국을 NATO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억지력(Integrated Deterrence)을 초석 삼아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자산을 “연맹(Federation)”형태로 합쳐서 운용하고, 양자동맹 형태에서 다자체제 동맹으로 재편하여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을 강조했다. 중국의 영토변화 야욕을 차단한다고 밝혔으며, 우주·사이버영역·핵심기술 및 신기술 분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오커스(AUKUS)³²⁾ 파트너십을 통한 연결과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만 통일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과 2위인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칩4(CHIP4) 동맹으로도 협력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림 2-13] 글로벌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 선도 회사 및 향후 전망



* 출처 : 미 공군. (2023).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vol.6, no.1 January-February

32) AUKUS(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

그림과 같이 현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53%, 대한민국의 삼성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도체 위탁제조기업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점유율은 5%에 그친다. 그러나, 10년 후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대만과 대한민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 시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도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미국이 유럽에서 가장 관심 있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수호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으로 중국도 대만을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

나) 중국의 다자협력체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동맹을 견고히 하는 기회였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우크라이나 인지전의 승리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중국몽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강군몽을 통해 부대를 개편하고, 대만 침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인민이 사망하여 대대적인 국가 손실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러시아가 빈약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NATO 중심의 협력체계가 강화됐다. 이는 일대일로측면에서도 유럽 진출에 부담이 되며,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여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추후 중국이 계획한 대만 침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일선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중국은 개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NATO 전략서와 INSSG에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맞서 함께 대응할 조력자가 필요하며,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는 중국과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서방 국가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중국은 기존에 계획하였던 일대일로와 A2/AD에 대한 연속성 유지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경제·안보 협의체인 ‘브릭스(Brazil/Russia/India/China/South Africa, BRICS)’를 통해 미국의 경제·군사 제재를 타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에서 실크로드를 담당하는 6개 국가³³⁾와 SCO를 설립하여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심지어 서방 국가와도 이어져 있다. 올해 4월 NATO 회원국인 프랑스는 러시아의 현존하는 위협과 중국의 떠오르는 위협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논란이 되었다. 중국은 프랑스의 항공기 160대와 헬리콥터 50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프랑스 전력 공사(Électricité de France, EDF)와 풍력발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역시 중국에 컨테이너선 16척을 발주했고, 중국 천진 공장에 추가 투자를 했다. 작년 11월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와 경제 사절단의 중국 방문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 이어 3번째 서방 국가의 중국 방문이다.

이처럼 유럽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유럽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수입·수출 구조를 가진다. EU의 총 수출 금액은 미국(22%)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10%)을 차지하며,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에 대한 유럽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가스를 필요로 하는 이중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유럽에 있어 크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패권 경쟁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는 영토 문제, 군사 위협 등은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철저히 경제적 이해관계로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미국 주도의 대중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유럽 국가에 대한 미국의 통제로 인해 유럽 국가는 경제적 자율성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본인들이 적으로 상정한 중국과도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러한 패권국가 간의 경쟁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33)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제 4 절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남·북한이 인식하는 안보 위협

CSIS의 위게임 상황에서도 상정한 것과 같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한민국이 인식하는 최대의 위협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며, CSIS도 이러한 예측을 위게임에 반영했다. 이러한 가정은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차 유엔총회 때 CNN과의 인터뷰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CNN 기자의 대만 방어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는 강고한 방위 태세에 기반해서 북한의 위협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답변은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한반도의 위협인 북한을 중국과 연결하여 미국이 한반도 위협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국의 대만 방어의 의도와는 다르다. 즉, 대한민국은 국제정세에 따른 북한의 위협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켜 공동 대응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싶지만, 중국의 해양력 장악을 억제해야 하는 미국은 한국의 입장이 아쉬울 것이다.

반면, 북한이 느끼는 위협은 대만 침공에 대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 강화이다. 미군 전력이 대만에 집중되어 전투력이 약화된 대한민국에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싶지만, 외교 갈등의 최고조인 전시 상황에 북한을 위협하는 미 전략 자산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의 효과적인 전투로 북부전구사령부의 집단군이 남중국해 지역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미·일·대 연합의 방어가 성공적일 경우 한반도에 최단 시간 투입이 가능한 북부전구사령부의 기갑/기계화부대들은 유사시 대만 통일 작전에 동원될 것이다. 이는 유사시 북한 지원이 제한될 것이고 북한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군사적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계획한 군사 도발의 실행 여부 자체가 미지수가 된다. 즉, 인민해방군의 성공적인 대만 침공은 북한의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중국의 상륙작전 실패는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만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2)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

분단 이후 김일성 집권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은 언제나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세대의 무능을 개혁하고, 핵 무력 역량 강화를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가지고 조선의 번영을 꾀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부실한 내실이 드러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산국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으며, NATO에서 규정한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한 경제·군사적 제재의 강도는 높아졌다. 북한도 이러한 제재 대상국 중 하나로 타격을 받았으며, 북한은 여전히 아사자와 탈북 시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저출산의 위기와(가구당 1.78명) 기아와 기근과 같이 북한이 타개할 과업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더불어,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로 NATO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범위는 ‘중국’으로 집중되었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됐다. 중국이 받는 이러한 압박은 중국에 의존적인 북한도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해서 중국과 북한의 어려움을 마냥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은 커지며, 커진 안보 위협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혼란스러운 국제 사회의 질서에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고려할 변수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국가들과의 정치·경제·군사 조약을 통해 방향성을 잡았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대사관은 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3) 북한 협력체계 강화의 제한

국제 사회의 기조에 맞춰 다자간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북한도 동일하게 느끼고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³⁴⁾’을 통해 군사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이 골칫거리일 것이다. 중국의 A2/AD를 위해 대만을 통일하고, 필리핀해까지 진출하여 태평양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34) 1961년 7월 김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來) 국무원 총리와 체결한 북한과 중국 간 군사동맹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발사는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꼴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인식하는 북한은 주적으로써 대응할 존재로, 억제전략을 목적으로 각종 협력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명분이다. 반면,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은 한·미동맹과 국경을 맞대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이다. 즉, 중국은 북한이 아무런 논란 없이 존재 해주기를 바라지만, 국가 존립을 위한 북한의 군사 실험은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냉소적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 북한과 중국은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우크라이나와 혈투를 벌이는 러시아로서 군사적 지원은 절박하다. 각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해왔다고 추정하지만, 지난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Космодром Восточный)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회담을 통해 양자 간 공식적인 군사협력을 이루었다.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협력과 무기 거래와 같은 안보 현안을 교환한 것으로 평가되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매체의 물음에 답했다.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로켓 기술력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3월 ‘맞춤형 감시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북한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고³⁵⁾, 국제적인 제재를 타파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으로 푸틴과의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월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으로 백악관, 펜타곤, 노포크 해군기지,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정리하자면,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고 싶지만, 경제·군사·문화적으로 이점이 없는 북한과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는 러시아와 하마스 정도이며, 대한민국의 다자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핵 실험과 ICBM·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중국에게 걸끄러운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5) 수출 통제 목록 :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탐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 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77개 품목

제 3 장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고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다자간 협력에 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2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수많은 분석과 전망,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존속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국가 목표³⁶⁾를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군비증강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변화는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 시켰으며, 외교적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군비를 증강시켜 주변국이 안보 위협을 느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절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증강

1) 전략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ive Damage, WMD)

올해 3월 미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에서 ‘정보공동체 연례 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TA)’를 공개했다. ATA는 북한의 목표와 활동을 정리하고, 군사력 · WMD ·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나타냈다. 동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과 대륙 간 무기 능력 향상으로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존속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향후 핵보유국의 입지를 얻을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³⁷⁾.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37) 원문 내용 : Kim almost certainly views nuclear weapons and ICBMs as the ultimate guarantor of his autocratic rule and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those programs, believing that over time he will gain international acceptance as a nuclear power

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지만, 공식적인 보고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해 온 경제제재 중심의 북한 핵 개발 억제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ODNI의 ATA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조사한 북한의 전략무기, WMD 개발 동향은 아래와 같다.

가) 북한의 핵 개발 동향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에는 괄목할 핵 실험 동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림 3-1] 북한의 핵 실험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월) 10:36	2009.5.25.(월) 09:54	2013.2.12.(화) 11:57	2016.1.6.(수) 10:30	2016.9.9.(금) 09:30	2017.9.3.(일) 12:29
규모(Mt)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 출처 : 국방부. (2023). 2022 국방백서

그러나, 작년 9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핵 무력 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히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였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통해 대남 전술핵무기 대량생산과 ICBM,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중점과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3월,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밝혔으며, 대남 타격용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공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각종 미사일에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사실이다. 북한은 보도된 자료를 통해 KN 계열 미사일과 SLBM, 화살, 해일에 화산-31이 장착된 사진

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개발 동향과 발맞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물론, 미국까지 전술핵이 닿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2] ‘화산-31’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 현황



* 출처 : 손효주. (2023). 김정은, 대남 전술핵 탄두 대거 공개… 尹 “핵개발 北에 단돈 1원도 못준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국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올해 가능성이 낮을 것이며, 202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는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에 대남 전술핵무기 생산이 목표였던 점, 지난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푸틴과의 회담에서 밝혀진 기술 지원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2024년은 군사정찰위성의 성공과 연계한 전략핵 장착을 위한 7차 핵실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임 말기를 기점으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였다. 대한민국 정권의 교체와 동시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대폭 증가시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공표한 ICBM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중 정찰 자산으로 발사 기도를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SLCM)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는 대남 전술핵 탄두 개발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세계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횟수

구 분	2021	2022	2023
발사 횟수	4회	34회	26회

[표 3-2] 2023년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월별 현황	발사 위치	비 고
1월(1회)	평양 룡성	KN-25
2월(3회)	평양 순안, 평남 숙천, 함북 김책	ICBM, 600km 방사포, 화살-2
3월(9회)	남포 강서, 함남 홍원, 황남 장연 평양 순안, 평북 철산, 함남 리원 함흥 흥남, 강원 원산, 평양 력포	화성-11라, SLCM, KN-23 화성-17, KN-23, 해일 화살-1·2, 해일, KN-23
4월(2회)	함남 금야, 평양 강동	해일-2, 화성-18
5월(1회)	평북 철산	천리마-1형 ³⁸⁾
6월(1회)	평양 순안	단거리 탄도 미사일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BM)
7월(4회)	평양 순안(2), 미상(2)	화성-18, SRBM, 화살, KN-25
8월(2회)	미상(함상), 평양국제비행장	화살-2, 화성-11나
9월(2회)	청천강, 평양 순안	화살-1, 화성-11가
11월(1회)	평양 순안	SRBM

* 출처 : 연구자가 국방부, (2023). 2022 국방백서 및 북한 미사일 도발 현황을 참고로 재정리

38) 2023.5.31.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을 필리핀 해안 일대로 발사했다. 북한의 첫 정찰위성 실험 발사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특히,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군사정찰위성 1대를 통해 북한의 정찰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만리경-1호’ 1대 이외 군사정찰위성이 없는 북한의 현 실태를 고려하면, 위성을 통해 획득한 사진은 적시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광학 렌즈의 능력이 높지 않을 것이며, 해상도가 낮은 위성사진을 당장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힘들 것이다³⁹⁾.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 타 국가의 사설 GPS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정보판단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자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할 정도로 이슈화가 되는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한 데 있다. 미래에 북한이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도 위협일 수 있겠으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능력 구비를 통해 10,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수준을 뛰어넘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넘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위협이자,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북한과 적대적인 국가들 모두에게 동일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기 때문이다.

2) 재래식 무기 변화 사항

2023년 북한의 국방 중점과업 자체가 대남 전술핵, ICBM, 군사정찰위성 3가지였기 때문에, 2023년 북한의 열병식에서 새롭게 식별된 재래식 무기는 없었다. 때문에,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식별된 기갑/기계화부대의 중장비, 화력지원 무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39)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사진을 노출하는 순간 위성의 성능과 실제 작동 과정을 전부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 기간 외부로 유출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출처 : 신현준. (2023). 北 "만리경 1호, 백악관·美 항모 촬영"...실제 성능 '의문'

[그림 3-3] 2020년~2022년 북한 열병식 식별 신형 주요 무기



〈신형 전차〉



〈기동포탑재 장갑차〉



〈미사일 탑재 장갑차〉



〈신형 자주포〉



〈신형 방사포 차량〉

* 출처 : 국방부 (2023). 2022 국방백서,
박수찬. (2023). “이젠 전차다”… 핵무기 ‘올인’ 했던 북한, 전차군단으로 한국군 압박하
나 [박수찬의 軍]

식별된 신형 전차는 전면 방어력이 증대되고, 경사진 포탑은 피탄 효과를 감소시켜 포탑 방어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능동방호체계(Active Protection System, APS)가 장착되어 한국군 대전차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였다.

또한, 차륜형 장갑차에 기동포나 미사일을 탑재하여 대전차전, 화력지원, 원거리 기계화부대 타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신형 전차와 장갑차는 노후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된다.

신형 자주포와 방사포는 기존 152mm, 170mm 자주포보다 긴 사거리를 보유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이 주장하는 300mm, 600mm 탄약을 장약할 수 있는 방사포 차량을 선보인 바 있다.

가) 2023 열병식 특이 동향

비록 새롭게 식별된 재래식 무기를 올해 열병식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열병식 공개 장비를 국제 사회에 보내는 북한의 메시지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발전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공개한 사항이다. 미국의 RQ-4 ‘글로벌 호크’, MQ-9 ‘리퍼’와 흡사한 형태의 셋별-9형을 올해 7월 열병식 간 공개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UAV처럼 대한민국의 종심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과시하는 것으로, 향상된 감시 능력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중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열병식에서 식별된 기체는 총 4대로, 실제로는 그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 셋별-9형 주요 제원



* 출처 : 유용원 외. (2023). 장난감 같던 北 무인기, 이젠 장난 아니다

둘째, 9월에 진행된 민방위 열병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서는 기존과 달리 노농적위대(한국군의 예비군·민방위 개념) 위주의 열병식을 진행했으며, 덤프트럭·냉장 탑차로 위장한 방사포와 트랙터에 병력이 탑승한 모습이 식별되었다. 이는 북한의 민간인도 유사시 언제든지 병력으로 전환될 준비가 되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장비에 무기를 적재한 모습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총동원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전투 참여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단순 내부 결속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우상화하기 위한 정치쇼라는 해석도 있다.

나) 9.19 군사합의 파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로도 수차례 조항을 어겨왔으며⁴⁰⁾, 대한민국 내에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대한민국만 해당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효력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이후 대한민국은 1조 3항⁴¹⁾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이후 북한에서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은 감시 초소(Guard Post, GP) 복원 절차이다. 남북은 5년 전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내 GP를 각각 10개 완전 파괴, 1개 GP의 원형 보존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동부전선 전방 북한이 GP의 감시소를 복원하고, 구조물 위장과 더불어 무반동총과 같은 중화기 배치도 이루어진 것을 식별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또한 야간 경계근무 병력이 투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북한의 GP 복원 사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0) 2019년 1회, 2020년 1회, 2022년 15회

41) 썩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5년 전 양자 간 GP 철거를 합의한 목적은 “가까운 거리만큼 상호 충돌 가능성이 큰 GP를 우선 제거함으로써 긴장 완화의 상징성을 높이는 취지”였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기존 GP 11곳의 복원을 일제히 진행하였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노출되는 위협이 커졌다.

제 2 절 북한의 군사 위협 전망

이처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위협은 전략 자산과 WMD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발전과 GP 복원 등 전방위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한 위협을 식별된 사항에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획득된 공개 출처에 의존한 전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응만 반복할 뿐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을 토대로, 북한의 동향을 군사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이 직면한 과제를 다음 3가지로 정리했다.

[표 3-3]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이 직면한 과제

- ① 타 국가의 다자협력체제로 인해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것
- ② 이를 위해 외교적 주도권을 군사 위협을 통해서 얻는 것
- ③ 체제 존속에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는 것

* 출처 :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참고로 작성

북한 역시 러시아의 인지전 실패로 전쟁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차이점은 극명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와 여론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권은 국제 사회를 불가피하게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다.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과 인적 자원, 러시아가 보유한 가스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맺게끔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경제력이 약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⁴²⁾)에서도

42)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가치사슬이라는 모델로 정립한 것으로, 맥킨지 컨설팅(McKinsey Consulting)에서 최초로 제시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Porter) 교수가 발전시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이 모델을 통해, 어떠한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상품 생산과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모든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협력하는 국가가 적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고립되어 원활한 상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립되어 있다. 때문에,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국가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만 뜻을 같이할 뿐,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는 북한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 즉,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내세울 이점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극화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결과적으로 좁아졌다. 이에 따라, 인지전의 관점에서 차후 북한이 군사력을 운용할 때, 대부분 국가가 북한의 편을 선뜻 들어줄 수 없는 형국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북한은 국제 사회가 맺는 다자협력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처럼 군사력·경제력과 같은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制裁와 끝없는 가난과 기근⁴³⁾, 최근 저출산과 재외공관 철수까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향후 북한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협력할 수준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기댈 수 있는 분야는 군사력이며, 투자 대비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탄도미사일과 핵은 적은 양을 보유해도 타국에 큰 안보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행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이 적대국과 중국·러시아 모두에게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비증강은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야이며, 주변국의 반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북한은 국방·사회·경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국가체제 존속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것으로 가정할 때, 중국의 대만 침공이 결정적인 시기일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시기에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3가지 과제를 토대로, 앞으로 커질 북한의 위협을 살펴보고자 한다.

43)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북한을 '식량 지원 필요 국가'라 발표하였으며, 세계 기아 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도 북한 인구의 40%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어 북한의 기아상태를 '심각' 수준으로 분류했다고 명시했다.

1) 물리적 영역

물리적 영역은 북한의 과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향상해야 할 분야이며,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로 더욱 물리적 영역의 군사력 발전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자가 예상하는 북한의 물리적 영역 위협은 3가지로, ① 7차 핵실험을 통한 전략핵 개발, ②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와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배치, ③ 노후 재래식 장비의 신형 대체 및 DMZ 위협 강화이다.

가) 7차 핵실험을 통한 전략핵 개발

북한은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에 맞춰 대남(對南) 전술핵 탄두 생산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성공은 ODNI에서 발표한 ATA의 내용과 같이 북한이 핵보유국⁴⁴⁾ 지위 획득 의지에 대한 반증이다. 현재 북한은 소형화된 전술핵 개발은 성공했지만, 핵을 보유한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다. 실제 유엔 북한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2023년 10월 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유엔총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현재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여 타국 대표부의 빈축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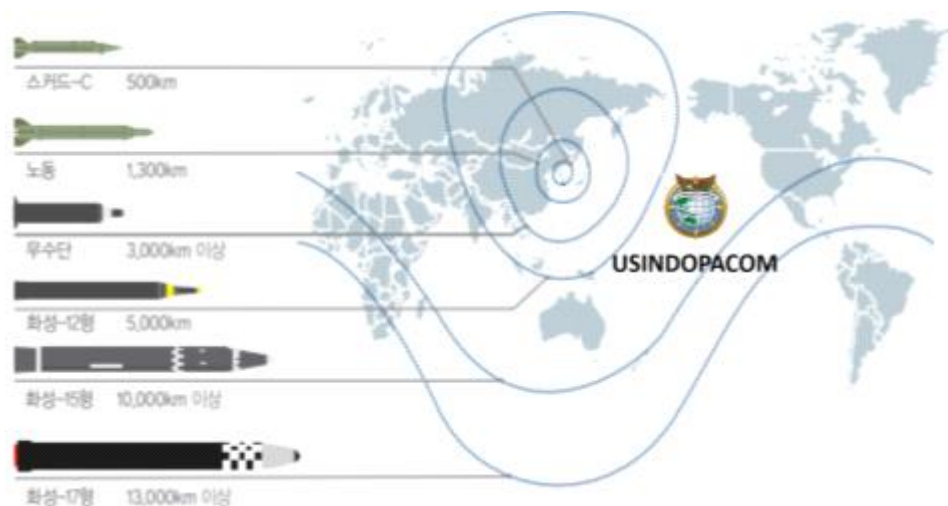
나)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 및 탄도미사일 전력화 배치

올해 북한의 3가지 군사 중점과제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 북한이 실시할 대륙·우주 간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북한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실질적인 능력이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다고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본과 인접한 동해 인근과 필리핀해까지 탄도미사일과 군사정

44) 핵 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 나라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다. 비공식 핵보유국은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으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핵 관련 각종 제재가 해제된다.

찰위성의 발사체가 다다랐던 점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범위는 인도를 넘어 태평양 일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하여 주도권을 얻고 싶어 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북한이 언론을 통해 식별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위치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된 해·공군 전략 자산이었기 때문이며, 향후 이 부대 인근으로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향상된 감시·정찰 능력을 통한 정밀타격을 위해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원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의 로켓·우주기술을 획득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핵 실험보다 위성 발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림 3-5]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위치



* 출처 : 연구자가 국방부, (2023) 국방백서를 참고로 재정리

다) 노후 장비 대체 및 DMZ 위협 강화

앞서 언급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완료되면, 전방에 배치된 노후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구형 장비는 후방에 배치될 것이다. 전차 분야에서 북한은 아직도 舊 소련이 운용하던 T-34, T-55 계열을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T-60, T-70, T-80 계열의 전차도 최고사령부 예하 기갑/기계화부대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2 흑표나 K-1

계열의 전차와, 주한 미군이 보유한 M-1 에이브럼스(Abrams) 전차에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 포병을 비교했을 때, 북한은 평양으로부터 원산을 연하는 선 이남으로 다수의 포병을 배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K-9과 주한미군의 팔라딘(PALADIN)과 비교했을 때 장갑력, 사거리, 명중률 모두 한·미연합의 화력 지원 수단이 기술적으로 압도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형 재래식 무기의 전력화는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GP를 복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 GP를 통한 다양한 국지도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응을 전방 접경지역으로 집중시키고, 대한민국이 불필요한 대응을 위해 노력의 낭비를 유도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래식 무기의 발전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최신 UAV를 통해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최종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의 재래식 무기 발전을 목표로 할 것이다.

2) 비물리적 영역

서론에 언급한 것과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정학적 수준을 넘어 지정학적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21세기 후반부터의 전장은 AI와 로봇 등에 기초한 인공지능전, 무인전(無人戰)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중간 과정에 있는 현재의 모습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비물리적 영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깨닫게 하였다. 특히, 전투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전자기전 장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차원에서 성공적인 사이버전은 피해국의 민심은 물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동향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북한이 증강 시킬 비물리적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가) 전자기전 능력 강화

전자기전은 상대의 전자기스펙트럼을 활용하여 아군의 감시 능력은 보장하고, 적의 감시 및 적의 전자기스펙트럼을 이용한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김정일도 생전에 “현대전은 전자전⁴⁵⁾이며,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지도했다.

북한의 전자전부대 출신 장세을 북한인민해방전선(군 출신 탈북자 단체) 사무국장은 2007년 탈북 당시에도 전자전 전담 2개 여단을 포함해 3만여 명이 넘는 전자전 요원이 있다”고 진술했다. 각각 평안남도 상원과 남포에 전자전 2개 여단이 있으며, 군단별 전자전 부대 자동화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2022년 5월 북한은 하기 훈련을 앞둔 전자전 부대 지휘관들 대상으로 “전시를 가장한 적군 와해 및 아군 대응 전자전부대 4중지휘훈련을 각 부대별 훈련진행표에 포함”시켰다고 북한 군 내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 훈련은 GPS 교란 장비를 이용한 실전 훈련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물리적 영역 비대칭 전력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를 꼽는다면, 비물리적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전자기전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 월등히 앞선 재래식 무기의 양적 수치를 감안해도, 대한민국의 물리적 영역의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하지만, 이를 무력화 시키는 북한의 전자기전 능력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이를 간과하였을 때 전자기전으로 사망한 수많은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나) 사이버전 능력 강화

2023년 4월 우크라이나 해커조직인 사이버 레지스탕스(Cyber Resistance)는 러시아 제960항공연대 지휘관 부부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다량의 군사기밀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지휘관인 아트로슈첸코 대령(Sergei Atroshchenko)의 개인정보는 물론, 여단 조종사 명단, 평가 기록, 각종 메모와 계산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전초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전황을 뒤집은 것도 사이버전 우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미 스페이스X社에서 우크라이나 내 스타링크 서비스 개통을 수락하여 우크라이나는 각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알리고 러시아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해커단체들도 사이버전을 통해 큰 활약을 했다. 우크라이나 편에 섰던 어나니머스(Anonymous)와 사이버 파르티잔(Cyber Partisans)과 같은 해커단체들이 러시

45) 과거에는 전자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전자기스펙트럼이라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전자기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아 국방부 DB를 해킹하고, 러시아 관영 언론에 디도스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을 감행하고, 러시아 군수물자 수송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실제 전장을 넘어 러시아의 민심도 동요케 하는 활약을 보여줬다.

2011년 북한의 미림대학(현 자동화대학)을 나온 탈북자는 “북한은 매년 러시아 교수들에게 교육받은 최정예 해커들을 100~110명 가량 배출한다”고 진술했다. 일찍부터 사이버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ODNI가 발표한 AT A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스파이적, 사이버범죄적, 사이버공격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2년 싱가포르 기반 블록체인 기술 회사로부터 6억 2500달러(한화 약 8,125억원)를 탈취한 바 있으며, 이는 WMD 및 국내 방위사업 기술 탈취에도 활용되었다. 실제로, 2023년 12월 4일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를 비롯한 기술원, 연구소, 금융회사 등 수십 곳을 해킹하여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한 기술자료가 탈취되었다고 경찰 당국 발표가 이를 증명했다.

[그림 3-6]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 해킹 체계도



* 출처 : 장보인. (2023). 北해킹조직 '안다리엘', 대공무기 등 국내 방산기술 빼돌렸다,

동월 7일에는 국정원 당국이 세종연구소의 자료가 북한에 새어 나왔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 핵심 관계자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새어 나

온 정보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세종연구소가 국내 대북·외교 안보의 싱크 탱크인(Think Tank⁴⁶)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발전 방향, 한반도 현안과 관련된 자료 등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북한이 전자기전과 사이버전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생산보다 비물리적 영역을 통해 대한민국과 동맹국에 혼란을 주고, 주요 정보를 탈취하며, 랜섬웨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활동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6) 모든 학문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제 4 장 북한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제 1 절 다자협력체계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동맹의 중요성이다. 70년 전 선조들의 전쟁에 대한민국은 UN군이, 북한은 중공군과 소련이 지원했다. 당시 군사력이 약했던 대한민국은 동맹의 힘으로 망국의 신세를 겨우 면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NATO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못 받는 것을 대한민국은 목격하였으며, 우하향하는 중국의 경제와 러시아에 충분한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중국을 북한이 인지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지전을 통해 전쟁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인식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1) 경제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직접적인 원조는 없으나, NATO 동맹국들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전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전세를 역전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군사적 협의체를 맺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자간 국방 협력의 필요성을 국제 사회에 피력했다. 일찌감치 IPEF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Quad의 확장된 형태인 Quad 플러스에 한국 참여를 논의 중이다. 물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중국도 협력해야 함을 주장했지만, 이와 별개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미국 중심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다자협력을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작년에 방문한 NATO와 IPEF를 APEC 참석을 통해 재 방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4개 기업⁴⁷⁾이 대한민국에 11.6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원)의 투자를 신

고했다.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⁴⁸⁾) 타결을 통해 중동 국가와의 온라인 게임과 의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건설 시장, 에너지·자원과 바이오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2023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여 네덜란드 정부, 반도체 회사인 ASML과 6건의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2) 군사협력 강화

군사적 협력체계 또한 작년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2023년 3월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 시절 파기하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⁴⁹⁾)을 부활시켜 완전히 정상화했다. 같은 해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미 백악관을 방문하여 NATO식 NPG와 유사한 내용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발표했다. NATO식 NPG처럼 미국 전략 자산과 핵무기 시설과 투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유사시 미국과 미 전략 자산 사용계획과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핵 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에 합의하였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양자 간 합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안보 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제공받는 여건을 마련했고, 미국은 남한의 비핵화를 보장받았다.

47) 각각 GM, Dupont, IMC, Ecolab이다. GM은 한국 현지 생산량 확대, Dupont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 IMC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 투자, Ecolab은 고순도 나노입자 생산 시설에 투자 예정이다.

48) 국가 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이나 경제, 기술, 투자 등에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FTA에 비해서 CEPA는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49)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 간 맺는 협정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밀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2023년 11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유엔사 회원국 17개국⁵⁰⁾을 대상으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ROK-UNCMS Defense 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개최 자체로 유엔군사령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유효함을 상기시키는 의의가 있으며,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다. 회의를 통해 유엔사회원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 시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표 4-1]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요 내용

- | |
|---|
| 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의 변함없는 지속
②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규탄
③ 유엔 원칙에 반하는 대한민국 안보 위협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④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 싸운 6·25전쟁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 |
|---|

* 출처 :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참고로 재정리

또한, 동월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하여 리시 수낙 총리(Rishi Sunak)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합의를 통해 한·영 양국은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사항으로, 안보·군사 분야에 있어 북핵과 같은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은 국제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과 방위사업 공동 수출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국방력 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한·영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에도 정부의 다자협력체계를 위한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실시했으며, 北 미사일 정보 정보 실시간 공유나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군사적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

50)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인지전의 성공을 통해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 다자간 협력을 맺은 것과 같이, 대한민국 또한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자협력체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언제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권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에 대한 기초가 바뀌었고, 방향성을 잃은 국방개혁은 기술·전략·전술적으로도 모호해졌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상비전력을 줄였으며, 군 조직과 체제변화 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군무원·공무직 근로자 대체에도 인원의 양적 열세는 잔존했고, 질적 강화를 통한 전투력 보강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2010년 2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던 때에도 우리 국민은 안전불감증에 젖어 전쟁은 먼 이야기라 생각했겠지만,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사회주의 국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후에 표명한 대만 침공 의지는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대한민국은 ① 끊임없는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위협, ② 제3국 위협과 테러와 같은 비국가적 위협에 모두 대비해야 하며, 이는 미래 우리 국방의 유례없는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코 기존의 개혁 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우위 첨단 기술의 군 내 접목 속도가 느리다 보니, 기술력의 격차는 매년 벌어진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일부 보완은 되었지만, 핵에 대한 대응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사이버·전자기전 영역은 북한이 훨씬 앞서고 있음을 깨닫고 뒤늦게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호한 한·미연합 지휘체계와 교육훈련은 뒤쳐진 기술력으로 인해 생긴 낙수효과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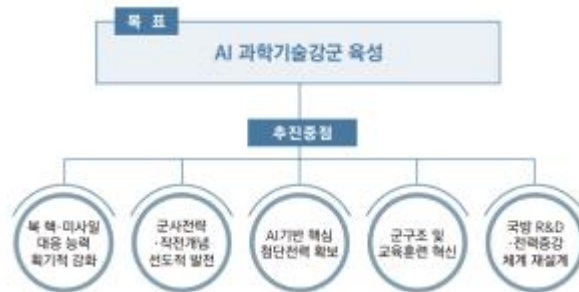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군은 어떻게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를 다음 2가지, ① 한·미동맹에 입각한 다자협력체제 확대와 ②북한군 전략무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제 2 절 국방혁신 4.0 추진

급격히 변화한 국제정세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국방개혁 2.0」을 「국방혁신 4.0」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정부의 4번째 계획으로, 1980년대 장기 국방 태세 발전 방향으로부터 2000년대 국방개혁을 넘어 2023년에 개편한 국방개혁의 새로운 명칭이다.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⁵¹⁾의 적용과 4번째 계획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의 의미는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 전력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R&D·전력 증강 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중점은 아래와 같다.

[그림 4-1]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중점



* 출처 :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부는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⁵²⁾ 운영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합참 직할 전략사령부로 창설 및 발전시켜 북한의 전략군사령부와 같은 합동성 차원의 통합을 이룰 것이라 기술했다.

51)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 무인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2) 3축 체계 :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또한,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사전략에 있어서 전방위 복합 안보 위협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통합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합동작전개념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 영역 통합작전’을 적용하여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 승리하는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림 4-2] 전 영역 통합작전 개념도



* 출처 :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더불어, 경계작전 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GP/GOP 경계는 전 개념에서 구역 개념으로 바꾸고, 최소규모를 군단 단위로 격상하여 경비여단 중심의 경계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과학화 경계 체계에 AI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무인 경계체계를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이다. 해안/해상/군항/각종 기지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경계작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半) 자율형 복합체계를 확산하여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AI·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경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전력화의 기반을 닦기 위하여 네트워크 연동·암호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주 영역의 군사적 활용성이 증가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의 군사적 운용성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조직 발전과 대내·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작전과 전자기전에 대한 작전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력 구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개편도 검토 중이다.

미래 국가인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장 양상의 변화에 따른 현 군구조는 한계가 있으므로, 첨단과학기술을 지휘·부대·전력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한 새로운 구조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 및 전 영역 통합작전을 고려한 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앞서 언급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전 부대에 도입하여 부대구조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 9월 1일 합참 예하 드론작전사령부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 부대구조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화전투훈련단(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 단), 전투지휘 훈련단(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BCTP 단)과 같은 과학화 훈련 부대의 조직과 훈련의 규모를 확대하여, VR·AR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통해 장비를 숙달시킬 것이다. 나아가, 실기동 훈련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훈련장 구축, 마일즈 장비 도입 확대, 전군의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 교육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전력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의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고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기술력을 발전시킬 과학 기술 인재 육성을 제도화하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 R&D와 전력증강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국방획득체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민간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천문학적 비용을 충당하고, 국방부 장관 주도 하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고, 국방부·합참·방사청 획득 관련 조직을 개편해 전력지원체계와의 균형적 통합적 군사력 건설을 계획했다.

이처럼 북 핵·미사일 대응으로부터 R&D까지 전방위적인 국방혁신을 통해 다가오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대한민국 국방 발전의 로드맵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우리나라의 대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한·미동맹에 입각한 다자협력체계 확대

만일 6.25. 전쟁과 같은 한반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본 연구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반도 전장이 대리전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NATO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명분이 부족했다고 하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간 이해 +관계가 일치했다면 더 큰 규모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6.25. 전쟁도 UN군, 중국·소련 간의 대리전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치슨 라인에 대한 공산국가의 오해로 전쟁이 비롯되었고, 동북 아시아지역의 열강들이 태평양 지역으로 동진하지 못하도록 UN군이 저지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4-3] 대한민국과 북한을 앞세운 열강의 대립 형상화



* 출처 : Sangyeol Lee. (2016). Criticizing U.S. Responses To North Korean Threats

대한민국의 기존 정권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표했던 것이 공통점이라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다자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팽배했으나, 현재 정권이 어중간한 중립의 입장은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여러 전략보고서를

통해 알아본 것과 같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수많은 조약과 협약은 총탄 한발의 소리로 무효화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는 나은 입장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즉,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협력 국가와의 조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고, 상대국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변수 없는 다자협력체계’의 고수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uad 플러스 합류, ASEAN, IPEF에서의 영향력은 물론,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일원이자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가로, 군사협력 국가와의 연합(聯合, Combined)⁵³⁾ · 합동(合同, Joint)⁵⁴⁾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이를 정례화시켜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세계에 피력해야 한다.

현 정부에 들어서 연합 지휘소훈련(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CCPT)에 국한되었던 연합훈련을 실기동이 추가된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훈련으로 격상하여 실전성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 연습은 미국 이외에 타 국가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 시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근거로, 다양한 유엔사 회원 국가와 연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상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리의 공유를 통해 유엔사회원국 內 어떤 나라와 작전을 하게 되어도 연합성과 합동성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유엔사 회원국이 아닐지라도, UAE나 인도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떠오르는 강국으로 평가되는 국가와의 연합훈련도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도 역시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UAE 또한 지역의 안정을 기반으로 석유를 통한 이권의 지속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대응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53) 2개 이상의 동맹국 부대나 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관계. 일반적으로 동맹작전은 연합 작전이라 함. * 출처 : ADP 1-02. (2018). Terms and Military Symbols

54) 2개군 이상의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각종 활동 및 작전조직
* 출처 : ADP 1-02. (2018). Terms and Military Symbols

확신이 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얻으며 파로스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의 중요성을 피력하여 언제든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가 대리전의 전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 절 북한군 전략무기 대응체계 구축

하지만, 한·미동맹은 물론, 타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확보하는 안보는 거저 얻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2001년 9·11테러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미군이 20년 만에 철수하게 된 이유도, 단기간에 러시아가 승전할 것이라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태껏 우크라이나를 세계가 함께 돕고 있는 이유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탈레반의 위협에 국가를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도피했던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대통령과 목숨을 바쳐 수도 키이우에서 국민과 함께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군사원조 규모의 차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준 것과 같은 믿음을 현재 대한민국과 협력 중인 국가에 증명해야 하겠지만, 애초에 군사력이 우크라이나보다 앞서있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 튼튼한 안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자협력이 더해질 때 확실한 승리를 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응징적 억제전략(Deterrence by Punishment)에 기초하여, 평시에는 핵을 외교적 카드로 쓸 것이며, 최악의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보복과 전장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거부적 억제전략을 기초로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고 있으며, AI와 연계한 Kill Web⁵⁵⁾ 개념을 적용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Low Altitude Missile Defense, LAMD)는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방어체제로 평가되지만, 요격 수량이 2,000여 발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 하마스 전쟁에서 대량으로 발사되는 장사정포를 모두 요격하지

55) 사이버 공격과 전자기펄스(Electromagnetic Pulse effect, EMP)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체계를 제압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를 발전시킨 것으로, 발사 수단과 지휘체계를 공격해 무력화하는 개념

* 출처 : FM 3-12. (2021). Cyberspace Operations and Electrmagnetic Warfare

못했던 점을 기억하고 보완해야 한다.

Kill Web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은 전자기전 능력이며, 사이버전과 AI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도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기전 능력은 북한에 비해 크게 뒤쳐졌으며, 오히려 북한의 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사전 징후를 식별하지 못해 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북한과 비교한 대한민국의 사이버전 열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갖췄음에도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업체들이 피해받은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12월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4일 제주도 해상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였다.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 궤도진입 성공과 더불어, 독자적인 위성 발사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군은 향후 4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며, 5기의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 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주기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림 4-4] 남·북한 군사정찰위성 제원 비교



한국군 정찰위성		북한의 만리경-1호	
800kg대	무게	300kg대(추정)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	탑재 장비	일제 상용 광학카메라(추정)	
30cm급 (사람 등신, 차량 종류까지 식별)	해상도	3~5m 안팎(추정) (건물의 형태나 차량 식별 불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발사체	천리마-1형(3단 액체연료 엔진)	
12월 2일(한국시간)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	발사 사례	11월 21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 출처 : 윤상호 외, (2023) 軍 정찰위성 교신 성공… 대북 길체인 ‘눈’ 달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성공과 단축된 정찰 주기에 만족할 수 없다. 향상된 감시체계를 어떻게 한국형 3축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전장의 영역을 우주로 확대한 성과인 만큼, 우주작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은 그저 성능 좋은 GPS 사진을 얻는 수단에 그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인식 변화와 세계 안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과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한 가운데, 북한의 군비증강 동향을 토대로 앞으로의 북한의 군사 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의 각종 전략서, 보고서, 보도 자료, 학술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인지전과 다자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상대적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자협력을 레버리지(Leverage)⁵⁶⁾ 삼아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1년 이상 전쟁을 지속시킨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따른 대만 침공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다자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위협을 강하게 피력하던 나라들이 경제적 이권이라는 틀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야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다자협력은 인지전의 승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둘째, 공통된 안보 의식이 있거나 공통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다자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 위협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 모두가 다자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경제·안보·문화적으로 앞선 대한민국의 경우 여러 협의체와 다자

56)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말(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본 연구자는 우크라이나가 타 국가와의 다자협력을 통해 군사원조를 받아 승리하는 것과 투자자가 부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에 빗대어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협력을 맺을 수 있었지만,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눈여겨 보기 힘든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군사력을 향상했고, 북한의 전술핵·탄도미사일·군사정찰위성 개발의 성공은 또다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국제정세와 이에 따른 북한이 직면한 과제, 북한의 군비증강 동향을 토대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영역에서 북한은 첫째, 7차 핵실험을 통해 전략핵무기를 확보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확대와 탄도미사일 전력화 배치를 이루기 위해 태평양까지 확대된 발사 실험을 단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와 연계하여 재래식 무기를 전방에 다수 배치하여 국지 도발을 단행하고, 점진적으로 노후 장비는 신형으로 대체할 것이다. 비물리적 영역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인지영역을 마비시켜 전쟁을 조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기전 능력을 집중 강화할 것이며, 사이버전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군사정보를 탈취해 미리 대응하거나 북한의 기술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래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을 제시하여 우리 군이 발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맺은 협력체계가 굳건하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발발하게 될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대리전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국가들이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군사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정례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고성능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었어도, 압도적인 수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없으며, 북한의 지휘체계 자체를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인 전자기전 능력과 사이버전 능력의 비약적 발전이 필요하

다. 또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우주 영역으로 확대한 만큼, 한국형 3축 체계와 연계된 감시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우주 영역에 대한 군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결과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하였고,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세계의 인식과 이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사건의 경과대로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자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화가 북한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북한의 군비증강 동향과 앞으로의 위협을 예측했다. 나아가,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방향성을 제공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1)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다수의 테러리즘과 크고 작은 전투는 국제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사회에 큰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전투력 운용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가 안보의 위협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가 얻은 교훈이 같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대만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다자협력의 촉매제가 된 것이 그 사례이다. 또한, 러시아는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군사력 보충을 위해 북한과 회담을 통해 군사적으로 교류했고, 북한의 러시아 군사기술 확보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 증가로 이어졌다. 한편, 미국 중심의 다자협력체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결코 유럽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다자협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된 국가와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하나의 사건으로 얽힌 복잡한 국제관계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우리나라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의 위협만 바라보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2)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북한 역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로 주변국의 행동은 물론, 대한민국의 동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듯,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안보의 위협은 물론, 북한이 국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중점으로 삼은 전술핵과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해 주도권을 얻고자 함이다. 북한에 있어 우리나라는 직접 국경을 맞댄 국가이자,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미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지속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외치고 있다. 즉,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적시적인 동향 파악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올바른 예측으로 북한의 기도를 조기에 예측하고, 빠르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여러 시사점과 활용성을 가질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일련의 국제정세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그 유기적 관계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위협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비증강과 관련하여 물리적·비물리적 영역은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원인과 향후 군사적 위협 예측에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과 보완 해야 할 점을 참고하여 국방정

책 발전을 위한 개발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방향성만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기술·이공계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의 근거로써 이 논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국제 사회의 동향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연구 이후에 변화된 국제 사회의 대응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이 다른 양상으로 국제여론이 변화할 수 있기에, 국제정세에 대한 적시성은 보장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제관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변수가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변화한다. 때문에, 유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제관계, 특히 안보의 영역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출처가 공개되고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현재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자가 내부의 인식을 알더라도, 비공개 자료를 논문에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셋째,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자료와 데이터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생물·화학방 무기와 같이 최근에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내용은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추적과 더불어, 더 넓은 범위의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좁게는 북한의 향후 5년, 10년 후 변화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결말, 다자협력체 간 연속성과 실효성을 각종 전문기관의 자료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 문헌 참고에 있어서 영어권 국가의 자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인접 국가들의 자료도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나라로, 중국의 국방 연구 문헌이나 정책자료 등은 북한의 변화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GSOMIA를 맺은 일본의 정보력을 활용한 연구는 더 높

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국내 방위사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업체들이 어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계약을 얻어냈는지, 방위사업업체가 일조한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연구한다면, 대한민국 군사력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 예측에 효과적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병철. (2022). 『尹대통령 "대만 분쟁시 北 도발 가능성 증대…北위협 대응 우선"(종합)』. 서울 : 연합뉴스.
- 국방부. (2019). 2020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 국방부. (2023). 2022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서울 : 국방부.
- 김근철. (2021). 텔레반 무서워 도망친 아프간 대통령, UAE에 입국 확인. 서울 : 뉴스핌.
- 김기용, 문병기, 김현수. (2022). 『시진핑, 바이든에 맞서 ‘반도체투쟁’ 선언』. 서울 : 동아일보.
- 김선희. (2022). 러시아, 50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전 세계로 확산. 서울 : YTN.
- 김성훈, 안정훈. (2023). [단독] 세종연구소 자료 북한 새어나갔나... 소장 이메일 해킹흔적 나왔다. 서울 : 매일경제.
- 김영리. (2023). 대사관 철수 또 철수...北, 10월 이후 재외공관 7곳 문 닫았다. 서울 : 한국경제.
- 김철환. (2023). 북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 수출 통제. 서울 : 국방일보.
- 김철환. (2023). "지소미아 정상화...군사정보 협력 강화". 서울 : 국방일보.
- 김치관. (2022). 김정은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 서울 : 통일뉴스.
- 김호준, 박지호. (2023). 군,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위성 탑재(종합). 서울 : 연합뉴스.
- 권영은. (2022). 『시진핑 "외세의 '색깔 혁명' 책동 막아야"... 미국 정조준』.

- 서울 : 한국일보.
- 권영은. (2023). 이스라엘 '피의 보복', 브레이크가 없다...국제사회 인내심도 '한계'. 서울 : 한국일보.
- 나연준. (2023). 윤 대통령, “한-네 반도체 동맹...국방·방산 역략 확충에 크게 기여”. 서울 : 뉴스1.
- 뉴시스. (2023). 젤렌스키, 동부전선 방문...“우크라 승리 자신”. 서울 : 뉴시스.
- 류재민. (2023).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군사협력 논의...위성 개발 도울 것”. 서울 : 조선일보.
- 모종혁. (2022). 『시진핑, 종신 집권 위해 대만 침공할 수도』. 서울 : 시사저널.
- 문기원, 조승빈. (2023).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최초로 모였다. 서울 : 국방정책실 북한정책과.
- 북한인권기록센터. (2023). 2023 북한인권보고서. 서울 : 통일부.
- 박수찬. (2023). “이젠 전차다”... 핵무기 ‘올인’ 했던 북한, 전차군단으로 한국군 압박하나 [박수찬의 軍]. 서울 : 세계일보.
- 박용하. (2022). 젤렌스키 미 의회 연설...“우리는 매일 9·11을 경험한다”. 서울 : 경향신문.
- 서현태. (2022).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전 수행방안 연구 : 게라시모프 doktrin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지』, 제78호, 151-152.
- 손효주. (2023). 김정은, 대남 전술핵탄두 대거 공개... 尹 “핵개발 北에 단돈 1원도 못준다”. 서울 : 동아일보.
- 손효주, 윤상호. (2023). 北 복구 GP 10곳, 우리GP와 1km內... 軍, 기습도발 대비 중화기 투입준비. 서울 : 동아일보.
- 손효주, 신규진. (2023). [단독]개발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北장사정포에 대응 취약. 서울 : 동아일보.
- 송지유. (2022). 『"푸틴, 이제 끝내"...참다못한 中·인도마저 러에 쓴소리 날렸다』. 서울 : 머니투데이.

- 신현준. (2023). 北 "만리경 1호, 백악관·美 항모 촬영"...실제 성능 '의문'.
서울 : YTN.
- 심연기. (2023). 정부 "尹대통령 APEC순방 계기 美 4개기업·1.5조원
투자유치 성공". 세종 : 뉴스1.
- 안용현. (2011). 북한 전자전 능력은?. 서울 : 조선일보.
- 양승진. (2023). 北, 11년 만에 '전국어머니대회'...김정은 개회사. 서울 :
시사주간.
- 유용원, 원선우, 조성호. (2023). 장난감 같던 北 무인기, 이젠 장난 아니다.
서울 : 조선일보.
- 유용원. (2023). 軍, 사이버 전자전·AI로 北 핵미사일 발사전 무력화 추진.
서울 : 조선일보.
- 윤상호, 신규진. (2023). 軍 정찰위성 교신 성공... 대북 킬체인 '눈' 달았다.
서울 : 동아일보.
- 이기동. (2022).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연설..."북핵 의지보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더 강해야". 대구 : 경북일보.
- 이종민. (2023). 시멘트포대 아래에 방사포·생수트럭에 병력...북, 민방위
열병식. 서울 : 글로벌에픽.
- 이주형. (2023). 한·영 정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서울 :
국방일보.
- 이진희. (2022). 러-우크라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초안 나왔다? -
이스탄불 협상 일찍 끝나. 서울 : 바이러시아.
- 임경섭. (2023). 북한 "정찰위성, 백악관·펜타곤 등 촬영". 광주 : KBC뉴스.
- 임정섭. (2020). 「북한의 군사 위협 변화에 관한 연구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전망을 중심으로」. 서울 : 한성대학교.
- 장덕수. (2023).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공동 선언문
서명. 서울 : KBS뉴스.

- 장보인. (2023). 北해킹조직 '안다리엘', 대공무기 등 국내 방산기술 빼돌렸다.
서울 : 연합뉴스.
- 전아현. (2023). 이탈리아 총리 “일대일로 참여 않고도 중국과 관계 유지
가능”. 서울 : 이투데이.
- 정아란. (2023). [한미정상회담] 확장억제 특화 '워싱턴 선언'...대통령실
"사실상 핵공유"(종합). 서울 : 연합뉴스.
- 정아란. (2023). 한미일 안보실장 “북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서울 : 연합뉴스.
- 전자신문. (2022). 윤석열 대통령, IPEF회의 참석. 서울 : 전자신문.
- 정철환. (2023). 독일, 스페인 이어 프랑스 마크롱까지...유럽은 왜 중국에 손
내미나. 서울 : 조선일보.
- 정철환. (2023). 사상자 1000명 넘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철검’ 보복작전
개시. 서울 : 조선일보.
- 정태주. (2023). 하기훈련 앞둔 北, 전자전 부대에 ‘4중지휘훈련’ 추가 포함
지시. 서울 : 데일리엔케이.
- 조성흠. (2023). 우크라 해커집단, 러 공군조종사 아내들 속여 군사기밀 확보.
서울 : 연합뉴스.
- 조아미, 서현우. (2023). 북, 파괴했던 GP 복원 병력·장비 투입. 서울 ;
국방일보.
- 조준혁. (2022). 『시진핑 "대만에 무력사용 포기 약속안해...통일 필히
실현"(종합)』. 서울 : 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차지연, 김치연. (2023). 국정원 "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러 도움 있었을
것으로 판단". 서울 : 연합뉴스.
- 통일부. (2023).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 테러정보통합센터. (2023).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국가정보원.

- 홍지인. (2022). 『이종섭, '쿼드 참여' 질문에 "같은 생각...인태 개념에 맞출것"』. 서울 : 연합뉴스.
- 홍선미. (2023). 尹 “영국은 혈맹...못 할 일 없다” 수석 “다우닝가 합의로 우정 더 강화”. 서울 : 포토뉴스.
- 홍효식. (2022). 『尹 동남아 순방, 한미일 경제안보 강화·시진핑 소통...인-태전략 첫선』. 서울 : 뉴시스.
- Jeremy Bowen. (2023). 하마스 무장대원이 일가족을 살해한 현장. 서울 : BBC 코리아.
- Tim Marshall. (2016). “중국, 4천 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 “미국,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최강국이 되다”. 수록처: 『지리의 힘』 (1장-2장). 대한민국 : 사이.

2. 국외문헌

Alex Horton. (2022). Ukraine wants more air defense. Here's how it works. U.S.A. : The Washington Post.

Alonso Bernal, Cameron Carter, Ishpreet Singh, Kathy Cao, Olivia Madreperia. (2022). Cognitive Warfare –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Brussels : NATO, U.S.A : Johns Hopkins University.

Alzazira. (2022). Weapons to Ukraine: Which countries have sent what?

ADP 1-02. (2018). Terms and Military Symbols. U.S.A. : Department of the Army.

Briefing Room. (2023). Washington Declaration. Washington D.C., U.S.A. : White House.

CNN. (2023). Ukraine aid : Where the money is coming from, in 4 charts. U.S.A : Atlanta.

Charles K. Bratles. (2016). Getting Gerasimov Right. U.S.A : Military Review.

DOD.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U.S.A.

DOD. (2023).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 ANNUAL REPORT TO CONGRESS. U.S.A.

Dr. Sohini Bhattacharya, Soumyabrata Roy, Michael E. McConney, Nicholas Glavin, Ajit Roy, Pulickel Ajayan. (2023). Opportunities for a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in Nanoelectronics. Montgomery :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Air University.

FM 3-12. (2021). Cyberspace Operations and Electromagnetic Warfare. U.S.A. : Department of the Army.

- Manuel Lafont Rapnouil, Tara Varma, Nick Witney. (2018). Eyes tight shut: European attitudes towards nuclear deterrence. Berlin :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George Barros, Mason Clark, and Karolina Hird. (2022).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APRIL 30. Washington, U.S.A : Press ISW.
- ISW. (2022~2023).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ashington, U.S.A : Press ISW.
- James Stavridis. (2019). 『China's Military Seeks New Islands to Conquer』. New York : Bloomberg OPINION.
- Juri Rescheto. (2022). Russian military call-up sparks major exodus. Germany : DW.
- Luke A. Nicastro. (2023) U.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January–February.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MAJ Kyle Amonson, CAPT Dane Egli. (2023). The Ambitious Dragon – Beijing's Calculus for Invading Taiwan by 2030. Montgomery :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Air University.
-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Eric Heginbotham. (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Washington D.C., U.S.A. : CSIS.
- Mohammed Haddad. (2021). Mapping Israeli Occupation, UAE : Aljazeera.
- NATO (2022) NATO 2022 STRATEGIC CONCEPT. Brussels : NATO.
- ODNI. (2023).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Virginia, U.S.A : ODNI. 20–21. 재인용
- Oliver Backes, Andrew Swab. (2019). Cognitive Warfare – The Russian

- Treat to Election Integrity in the Baltic States. U.S.A. : Harvard's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Pew Research Center's Global Attitudes Project. (2022). Spotlight on Poland and Negative Views of Russia Surge, but Ratings for U.S., NATO, EU Improve. Washington, D.C. : Pew Research Center.
- Pieter D. Wezeman, Justine Gadon and Siemon T. Wezeman (March. 2023)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2. U.S. : Sipri Fact Sheet.
- President Joseph R. Biden.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U.S.A. : White House.
- Silk Road Briefing. (2018). China's Soft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ungary : Silk Road Briefing.
- Miroslav Mitrovic, Dragan Bojanic. (2021). Battalion tactical groups of the Russian Armed Forces in the altered physiognomy of modern conflicts. Serbia, Belgrade : Vonjo delo. 29–30.
- White House (February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A. : White House.

ABSTRACT

The Prospect of nK's Threats due to International Situation

Sunwoo, Min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Security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Hansung University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in February 2022 not only shocke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and lesson for the entire world. Ukraine, which was expected to be defeated within a short period, continues to endure the war one year later. With active support from Western powers and localized victories, experts increasingly anticipate Ukraine's eventual triumph. The lessons and influence of the Ukrainian war on the world have been substantial, leading to numerous studies and shifts in perception due to its far-reaching implications.

The first lesson from the Ukrainian war is the importance of cognitive warfare. Ukraine's ability to navigate favorable circumstances was driven by the victory in pre-war cognitive warfare, influencing the adversary negatively and creating advantageous conditions for all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Ukraine was portrayed as a force for good, eliciting international c

condemnation of Russia, inducing military build-up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military support to Ukraine.

The second lesson is the importance of a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e onset of the Ukrainian war has not only made neighboring countries but the entire world feel the threat to security. Russia, desiring to regain past glory, and China, seeking to reclaim its status as a hegemonic power from the United States, have become common perceived threats. In response, various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not only among Western nations but also in the Indo-Pacific region. South Korea, too,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be part of these cooperative frameworks.

North Korea is lik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gnitive warfare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s; however, lacking advantages as a nation, North Korea resorts to posing military threats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an attempt to escape international isol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nventional weapons as well as the successful advancement of strategic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capabilities, North Korea is striving to regain attention as a threatening pres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Considering North Korea's goal of self-perceived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 its pursuit of nuclear-armed status, it can be anticipated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possess strategic nuclear weapons through its seventh nuclear test. Additionally, the country may expand the testing range of ballistic missiles into the Pacific, and in conjunction with the nullification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North Korea is likely to implement policies aimed at modernizing conventional weapons.

In respons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outh Korea has announced "Defense Innovation 4.0" as a roadmap to

o effectively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However, to further enhance our defense capabilities, there i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EMSO and cyberwarfare capabilities. Additionally,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a Korean-specific three-axis system integrated with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s are essential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Key words】 Ukraine, Cognitive Warfare,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reats of North Korea, address the threats